



성도의 벗 10  
1974

## 영감의 메시지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

**성도** 우리는 주님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워 주신 분입니다. 이 시대에 하늘이 열려서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은 바로 주님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나타내 주신 진리를 믿고 그의 뜻대로 살아 가겠다는 소망을 가져야 하며, 그 소망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지녀야 합니다. 교회 회원이거나 비회원이거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주님의 뜻과 상반되는 교리나 믿음을 지지하거나 받아 들이거나 신봉해서는 안됩니다. 주님께서 나타내 주신 진리를 탐구하며 그 뜻대로 믿고 행하겠다는 것을 우리의 유일한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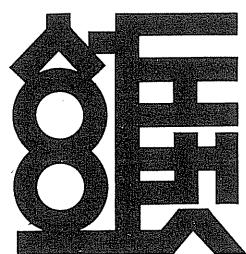


## 순 서

영감의 메시지	조셉 필딩 스미스
<b>2</b> 믿음직스러움	엔 엘돈 태너
<b>4</b> 신권활동 : 이를 달성하는 법	데이비드 에이치 토마스
<b>7</b> 너희가 끝까지 견디면 :	캐롤 라슨
독신여성의 목표	
<b>12</b> 리드 스무트 장로	
<b>15</b> 위대한 여성	아타 엠 헤일
<b>18</b> 가나안 정복	에드워드 제이 브란트
<b>21</b> 자신의 특별한 재능을 발견한 아이들	로사리 더블류 도스
<b>24</b> 캐로리나의 기도	루스 스완슨
<b>26</b> 친구가 친구에게 : 모든 사람은 선교사임	에스 딜워스 영
<b>28</b> 심심풀이	
<b>29</b> 질의응답	
<b>31</b> 우리는 무엇을 듣고있나	스펜서 더블류 킴볼
<b>34</b> 선교사업 : 중요한 책임	에즈라 태프트 벤슨
<b>38</b> 믿음의 방패를 만들라	엘 톰 폐리
<b>40</b> 봉사를 위한 다짐	제이 토마스 화이언스
<b>42</b> 예수께서 걸으신 길	토마스 에스 몬슨
<b>46</b> 스테이크 부장단 메시지	
<b>47</b> 내외소식	

###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볼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멜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휴 비 브라운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힙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로스 알 맥콩키  
엘 톰 폐리



## 성도의 벗

제10권 제10호 1974년 10월호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 일  
발행일 1974년 10월 1 일  
매월 1 일 발행  
통권 111호  
발행인 겸 편집인 : 엘 에드워드 브라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 73-5331  
발행소 :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 서울 1409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전 수

### 정가

1 권 150원 1 년분(송료포함) 국내 1,200원  
일본, 홍콩, 마카오, 중국, 7 불  
필리핀, 월남, 라오스, 태국 9 불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 14 불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중근동아시아 18 불  
선박 3 불

# 믿음직스러움

엔 엘든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성도** 내가 지금까지 들어 본 꾸지람 중 가장 심한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 받은 교훈 중에서 가장 잊지 못할 교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부친께서 어린 나에게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아들아 난 너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당시 아버지는 감독이셨으며 와드 장례식을 돌보려 떠나시면서 동생과 나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멀리 가셔서 오래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우리가 송아지를 타고 신이 나서 놀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는 일을 마치고 돌아 오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였고 항상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난 너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라고 하셨을 때 정말로 마음이 아팠으며, 그때 그곳에서 나는 다시는 그러한 말을 듣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일로 해서 아버지께서는 실망하셨고, 나도 몹시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난 너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라는 말을 듣지 않고 살아 가야 하겠다고 마음을 새롭게 먹곤 하였습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께서 화가 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내가 침례를 받을 때, 신권에 성임될 때, 교회의 직분에 부름을 받을 때 이행하기로 약속한 것을 실천하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난 너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라고 말씀하시지 않도록 살아 가야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 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나는 회개해야 할 만한 일도 하였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께서 나를 믿으실 수 있도록 살아 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잊어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16년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는 학생들에게 그들이 동료와 맷은 약속이나 하나님과 맷은 성약을 지켜 살아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내가 끊임없이 나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온 바입니다.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참되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며, 젊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권을

지녀 그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자녀임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침례를 받거나 신권을 받거나 교회의 직분이나 기타 조직에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과 맷은 성약을 지키며 합당하게 하루 하루를 살아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는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믿지 못할 판국인데 어떻게 우리의 젊은이들이 영예롭고 정직하며 온전하게 되기를 바랄 수가 있겠느냐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의 대답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어진 책임을 믿음직스럽게 처리해 나가며 하루 하루를 성실히 살아 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소한 거짓말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나?  
영예와 온전함을 어떻게 보는가?

사업상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일을 용납하는가?

사랑과 전쟁, 정치와 운동에서는 모든 것이 공정해야 한다는 옛 격언을 그대로 받아 들이는가?

우리는 정말로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해 조용히 생각해 보고 정직하게 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공무원으로 일할 때나 사업을 하고 있을 때 그곳에 지원하여 오는 사람과 면접을 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상사는 흔히 “이 사람은 정직하고 믿음직합니까?”라고 묻곤 하였습니다. 믿음직스럽다고 추천 할 수 없을 때는 마음이 언짢았으나 의심없이 추천 할 수 있을 때는 기쁜 마음이 한량없었습니다.

어느 큰 회사의 지배인이었고 정부의 고관을 지낸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부 기관의 공무원 모집에 수많은 지원자가 모여 들었읍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열 명을 우선적으로 뽑았습니다. 열 명을 놓고 자세히 살펴 보니 그 중에는 당신 교회의 회원이 한 명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택했지요”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을 택했나요?”하고 내가 물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밤늦게까지 흥청대며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라는 점

을 알았지요. 또 우리는 그를 믿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지요. 우리는 그가 맡겨진 일이면 성실히 해낼 수 있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이랍니다.” 우리의 젊은 이가 모두 이러한 사실의 중요성을 온전히 이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이 믿음직스러워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곁으로 보아 훌륭한 사람이었으나 내적인 마음을 알지 못해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크게 실망을 맛보아 괴로와한 적이 있었읍니다.

우리는 매일 한번씩 나는 믿음직한 사람인가를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주위에서 온갖 세상적인 일에서 성공하고 세상에 공헌을 한 사람이지만 그들 앞에 닥친 유혹을 이겨낼 만큼 장인한 마음을 갖지 못해서 결국은 실패한 사람의 예를 종종 보아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사탄이나 그의 추종자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도덕관을 멀리하게 하고 부도덕한 새로운 도덕관에 우리를 이끌어 가는 이 세상의 상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일예를 들어 연애 기간 중 나는 부모에게 신뢰를 받고 있으며, 우리는 서로 깨끗하고 순결하며 서로를 존경하고, 참된 성인 남녀가 되기에 합당한 일을 하고, 우리가 자녀에게 바라는 합당한 부모가 되고자 결의를 새롭게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나의 자녀들이 “훌륭한 부모에게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전당에 들어가서 현세와 영원을 위해서 인봉을 받고, 그의 영이 함께 거하며 그가 그의 영의 자녀를 기쁜 마음으로 보내고 싶은 가정을 준비하기 위해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나를 믿고 자녀들을 잘 키워 그에게 보내도록 맡기실까? 주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나는 매사에 정직하고, 남이 나에게 행해 주기를 바라는 일을 먼저 그들에게 해주고 있나? 나는 십일조와 헌금을 바치는 데 정직한가? 주님께 십일조를 바치지 않는 것과 소득세를 물지 않는 것과는 어떤 것이 더 나쁜가? 국법을 어기는 것이 주님의 윤법을 어기는 것보다 더 나쁜가?

우리는 법을 순종하고 존중하며 지지하지만 많은 사람은 법을 어겼을 때 받게 되는 형벌이 두려워 국법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명을 어긴 자에게 반드시 벌을 주시나 우리는 그가 우리를 위해 보이신 사랑과 희생, 약속하신 축복을 생각해서 그의

율법이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을 깊이 생각해 보고 이 계명을 우리의 생활의 일부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신임을 얻을 만하다가 그쳐서는 안되며 항상 믿음직스러움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큰 일에서는 물론 작은 일에서도 성실함을 보입시다. 2분반 말씀이나 가정 복음 교육, 병자를 방문하는 일이나 혹은 스테이크 선교사나 복음 선교사의 부름이든지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을 믿음직스럽게 처리해 나갈 수 있읍니까?

다음과 같은 성구를 기억하십시오.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 택함을 받지 못함은 무슨 연고뇨?

이는 저희 마음이 지나치게 이 세상의 것에 얹매여 있고 또 인간의 영예를 갈구함이며…”(교성 121 : 34-35) 이러한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이 못됩니다.

주님께서는 택함을 받은 몇 사람에 관해 말씀하셨으며, 그려한 사람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와 같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혹은 나는 그의 교회의 회원이 되어 남과 다른 점에 대해 후회하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남과 다른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복음의 가르침대로 생활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과는 다른 주님의 성실한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비록 혼자 남게 되더라도 내가 옳다고 생각한 바를 지키기 위해서 비난이나 조소라도 견디어 낼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나를 믿으셔서 그의 교회와 그의 예언자를 변호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보이신 큰 희생의 축복을 받아 들이게 하실까?

일어서서 헤아림을 받도록 하십시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내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 : 15) 항상 주님의 곁에 계십시오. 다음과 같은 찬송가의 가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하세  
이 세상 끝나면 보상있으리니  
의를 위해 창검을 휘두르세  
힘찬 진리의 창검  
적의 조롱 두려워 말고  
악한 자의 말 듣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주만 복종하리

말일성도 찬송가 198장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망과 결단력을 지녀야 하며, 모든 면에서 스스로를 훈련시켜 서로 “그는 믿음직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신권** 실로 오랜 기간 동안 와드의 감독단은 반주자나 지휘자의 도움만으로 신권회를 이끄는 외로운 삼 형제와 같이 지내 왔다. 다른 신권 소유자들은 모두 멀리서 이들을 지켜만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 날은 양상이 달라졌다. 감독단은 장로 정원회 회장단, 칠십인 및 대제사 그룹 지도자와 함께 연단 위에 앉게 되었다.

신권 지도자가 청중의 자리를 떠나 연단 위에 오르게 된 것은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암시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정원회에 있었던 큰 힘이 이제야 제 역량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 공파 담당 책임자인 존 웨일 코비 형제는 말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덧붙였다. “정원회 회원의 계보, 선교 사업, 가정 복음 교육, 개인 복지등은 이제 모두 정원회의 책임에 속하게 되었으며 감독은 청소년과 와드 회원들과 일하고 협의하는 데 보다 많은 시간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권 지도자들의 활동을 새롭게 강조하게 되자 정원회 지도자의 훈련 문제와 교회내의 수련 장로에 대한 활동 측진이 시급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방향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부름필드 힐스 미쉬간 스테이크에서 볼 수 있다. “우리는 감독단을 부를 때 신중을 기하던 것처럼 장로 정원회 회장단을 부르는 일에도 매우 신중을 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존 알 파이퍼 부장은 말한다.

정원회 회장단에 부름을 받은

## 신권활동 : 이를 달성하는 법

데이비드 에이치 토마스

사람은 아내와 함께 스테이크 부장단 세 사람과 접견을 갖게 되며, 이때 스테이크 부장단은 부름 받는 사람의 지명과 임무에 대해 특별히 세밀하게 설명해 준다.

“우리는 이 일을 맡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장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전에 들어 가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을 이 직책에 부르지 않습니다. 스테이크 역원은 부름을 받은 사람을 인도하고 도와 주지요”라고 파이퍼 부장은 말한다.

이러한 지명을 받은 사람을 돋기 위해서 파이퍼 부장은 각 고등 평의원으로 하여금 한 와드나 혹은 한 정원회를 맡아 책임지게 하였으며 이 두 가지를 겸임하지 않게 하였다.

파이퍼 부장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함으로써 고등 평의원은 자기에게 지명된 정원회의 회장단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

고등평의원을 정원회의 상임 고문으로 지명하는 일 이외에도 스테이크 부장은 매달 감독과 한번씩 만나는 것과 같이 정원회 회장과도 만난다. 정원회 회장이 월례 가정 복음 교육을 평가하는 것도 스테이크 부장과 갖는 이 접견

을 통해서이다.

“우리의 프로그램은 다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정원회 지도자나 회원이 자기가 지명받은 일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신권 정원회는 교회 조직의 기본 단위이며, 따라서 이에 대해 잘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신권의 목적과 중요성을 보다 훌륭히 이해하게 됩니다”라고 파이퍼 부장은 말을 이었다.

장로 정원회와 그들의 책임을 이처럼 집중적으로 강조하자 놀라운 결과가 속출하고 있다. 디트로이트 스테이크에서는 15개월 만에 66명의 새로운 장로를 성임하였고 44명의 비활동 수련 장로를 활동화시켰으며 두 개의 정원회를 새로 탄생시켰던 것이다.

비활동 회원이었던 26명의 장로를 다시 활동화시킨 것은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형제들에게 신권에 딸린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시켰으며 지도자가 정원회 회원들을 위해 맡은 막중한 책임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라고 파이퍼 부장은 말했다.

앵커리지 앤디스카 스테이크가 개최한 수련 장로를 위한 모임을 통해서 33명의 새로운 장로가 멜기세덱 신권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사모아에서는 일년에 선교부 산하에 있는 수련 장로 중 22퍼센트에 해당하는 형제가 멜기세덱 신권을 받았다.

163명의 수련 장로가 있는 바운티풀 유타 하이트 스테이크는 특별 훈련 계획을 실시하여 1972년에 40명의 형제가 신권에 승진

되었다.

사우스эм프顿 잉글랜드 스테이크에서도 이와 비슷한 추세를 볼 수 있으니, 한 해에 28퍼센트가 신권에 승진되었고, 실버 스프링 매리랜드 스테이크에서도 1972년에 19퍼센트의 신권 승진율을 나타내었다.

교회의 모든 스테이크가 보다

활동적인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를 만들기 위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자 새로운 신권 사업에 대한 목표를 성취하였으며 지도자의 영감을 통해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

실반 위트워 스테이크 부장이 이끄는 랜싱 미쉬간 스테이크는 1971년 말에 칠십인 제일정원회의 로렌 시 던 회장으로부터 신권 소유자가 가장인 비활동 회원 50가정을 활동화시키라는 목표를 받았다.

위트워 부장은 11명의 감독과 지부장에게 정원회 활동을 통해서 활동화시키고 싶은 가정의 명단을 제출해 줄 것을 부탁했다. 매달 스테이크 부장과 갖는 신권 접견을 통해서 진척 상황이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목표 설정과 확인 과정은 좋은 결과를 낳았다. 어느 와드에서는 본 프로그램으로 활동화된 사람 중에서 대제사 그룹 지도자, 주일학교 회장, 와드 집행 서기가 부름을 받았다. 기타 활동화된 사람 중에는 현재 지부장단의 보좌와 지부 집행 서기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으로 네 가정이 신전에 갔다. 새로 부름을 받은 장로가 한 명이 선교사로 떠났다. 20여명의 장로와 칠십인, 대제사가 활동화

되었다. 위트워 부장의 말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의 결과 25명이 멜기세덱 신권에 성임되었다고 한다.

와드 및 신권 지도자가 위트워 부장에게 보고하면서부터 6개월 만에 목표의 반을 달성하였으며 50 가정을 달성하는 목표가 일년 만에 달성되었다.

위트워 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활동화시키려는 와드나 정원회의 목표를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교회의 멜기세덱 신권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신전 사업이며, 이 사업에서 가장 성공적인 예를 보인 곳이 그랜츠빌 유타 스테이크이다.

“신전 사업의 성공은 두 가지 중요한 요인에 달렸다고 보는데 그 하나로 우리는 금식과 기도를 통해 사업의 의의를 인식시키기 위해 세미나를 준비하였고, 둘째로 혼신적인 가정 복음 교사의 노력에 크게 힘을 입었습니다.”라고 케네스시 존슨 부장이 말했다.

존슨 부장은 150 가정을 목표로 정하고 구체적인 세부 계획 모임을 시작했다. 스테이크 부장단이 신전 사업 세미나의 세부 의제를 마련하였다. 각 모임은 영적이고 유익하며 새로운 동기를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하여 도움을 받지 못한 대상 가정에는 스테이크 부장이 신권 지도자를 통해 유능한 가정 복음 교사를 파견하였다.

선임 가정 복음 교사와 그의 아내가 특별한 지명을 받았다. 그들은 우정 증진 역할을 맡아 자주

그 가정을 방문하였고 같이 신전 여행을 갈 계획도 짰다.

“이것이야말로 신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가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읍니다.”라고 존슨 부장은 말했다.

“이러한 가정들은 억지로 맷어진 관계를 넘어서 참으로 영원한 친구가 되며 형제요 자매가 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랜츠빌 유타 스테이크의 신전 사업은 첫 번째 계획의 일환으로 30 가정이 솔트레이크 신전에 갔고 73명의 자녀가 부모에게 인봉된 사실을 보아서도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 또 다른 20명이 장로로 성임되어 신전에 갈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은 신권의 진정한 원리의 하나님 형제애를 배우게 되었다”고 코비 형제는 말한다.

“교회에서는 많은 형제가 오랫동안 신권 정원회를 다른 주일학교 공파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정원회가 아닙니다.”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는 각 회원의 영적인 복리를 위해 감독이 갖는 책임과 견줄 만한 큰 책임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은 장로와 수련 장로와 그들의 가족이 교회 회원의 83퍼센트에 달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다시 절감하게 될 것이다.

코비 형제는 이렇게 말을 맺었다. “주님께서는 점차로 보다 큰 책임을 신권 지도자에게 준비시키고 있는 것 같읍니다.”



# 너희가 끝까지 견디면: 독신 여성의 목표

캐롤 라슨

부편집인

 전쟁에서 약혼자를 잃은 한 젊은 여성이 괴로움을 달랠 기 위해서 템플 스퀘어에 있는 방문자 센터를 찾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정말로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했던 사이였습니다. 약혼자가 없는 세상을 그녀가 살아 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명상할 수 있도록 마련된 방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은 성구를 읽고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만일 내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면 영생을 얻으리니, 이 은사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것이니라.”(교성 14:7)

혼자된 사람이 어떻게 훌륭하게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교회에는 650,000명의 성인 독신 회원이 있으며 그중 반 이상이 여성입니다. 교회에 속한 독신 여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성격, 연령, 취미 등이 각기 다른 사람들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물론 결혼을 했으나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70세인 이레타 자매는 결혼을 하지 않았으나 활동적이고도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 온 퇴직 교사입니다.

50세인 루실 자매는 오랫 동안 노모를 모셨습니다. 최근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답니다.

35세인 그레이스 자매는 자동차 사고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읍니다.

40세인 메리 자매의 남편은 그녀가 교회에 개종하자 그녀를 떠나 버렸습니다.

그외에도 수 많은 사람이 비슷한 환경에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기회가 오거나 사정이 허락하면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사라는 8세에 침례를 받은 후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조부 모님은 초기 교회의 개종자였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항상 사랑과 헌신의 모범을 몸소 실천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훌륭한 직장을 갖고 있었고 편히 살 수 있는 집과 상호부조회에서 책임자로서의 직책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얼른 보아 그녀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소녀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는 불행하였겠습니까?

사라는 독신이었고 승영을 얻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행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몇 차례나 결혼할 기회가 있었으나 그때마다 결혼은 기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상대편의 남자가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라는 많은 친구나 친척들로부터 “왜 결혼을 하지 않니? 너처럼 멋진 애가 왜 결혼을 않는지 모르겠구나?”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자주 강조되자 사라와 기타 말 일정도 독신 자매들은 결혼이란 자신

의 가치관의 척도라고 느끼면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자기가 영원하고 중대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위에서부터 민감하게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찬 독신 남녀들이 받는 가장 참기 어려운 압력은 대개의 독신 남녀가 자기의 입장을 잘 알고 있으며 기꺼이 이러한 입장을 바꾸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친구나 친척들의 선의에서 나온 경솔한 충고라 하겠습니다.

사라는 매력적인 여자이지만 이미 30세에 접어 들게 되었고 미혼이어서 스스로 매력을 상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자기 자신과 인생 전반에 회의를 느끼기까지 합니다. 그녀는 완전히 실의에 빠지는 것이 그녀의 기도에 응답을 주며 삶에 생기를 넣어 주는 하나님의 권세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만일 그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도울 수도 없고 도와 주시지도 않는다고 믿는다면 그러한 의심으로 신앙을 멀리 했을 것입니다. 이 들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의문을 갖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끊임없이 실의에 빠져 있다면 신앙을 잃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실망의 상태를 극복하는 길이란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기도를 반드시 들어 주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발전시켜 가는 길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얻기란 쉬운 일이나 우리는 기술을 습득하듯 끊임없는 실천과 적용을 통해서 이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결혼을 하겠다는 의롭고 합당하며 인정할 만한 소망이라면 그가 원하는 때에 그의 방법으로 이에 응답을 주실 것이며, 혹 이생에서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면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라의 모든 친구가 다 그녀의 요구에 무감각한 반응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몹시 침울해 있을 때 한 친구가 “어려운 일이라고 포기해서는 안돼” 하며 말했습니다. 친구로부터 들은 이 단순한 격려의 말에서 그녀는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좀 별나다고들 주위에서는 말했으나 그녀는 기쁘고도 궁정적인 자세로 인생을 살아갈 능력을 발전시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혼자 있게 된 수 년을 교회와 지역 사회와 이웃을 위해 뜻깊은 일을 하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신앙을 개발하고 이에 의존하며 결혼은 영생에 이르는 끝없는 길에 오르게 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는 것을 배움으로써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전 3:1) 사라는 자기가 5년이나 10년 아니면 20년이나 평생토록 영원한 반려자를 찾지 못할지도 모르나 그 기회가 찾아 왔을 때에는 언제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사라가 이 세상에서 결혼을 아주 못하게 된다고 해도 그녀는 주님께서는 그의 예언자를 통해서 합당한 사람에게서는 축복을 거두어 가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알아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젊은 여성이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들이고 율법을 지켰으나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영원히 결합되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 결혼 제의를 거부하였을 때는 그녀가 받을 보상도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의 마음 속에 간직한 소망대로 그녀를 판단하실 것이며, 결혼의 축복이 다음에 오는 생으로까지 보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보류된 축복은 반드시 오게 될 날이 이를 것입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구원의 교리[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55년], 2:77)

교회에 속해 있는 수많은 독신 여성은 모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온전한 여성으로서 남편과 자녀에게 사랑을 줄 수 없는 입장이 된 것은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내와 신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여러분에게 잘못이 없음을니다.

자매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가족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혼히 자매들은 가족이란 “나의 남편과 자녀”라고만 한정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이렇게 좁게 생각한 가족 관계를 이루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므로 자매는 자신의 삶에서 가족 관계를 멀리 쫓아 버리게 되고 가족이 줄 수 있는 일들을 주고 받는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마저 잃고 맙니다. 그녀는 어떠한 가족 관계를 추구해야 하겠습니까? 그녀는 세 식구가 있는 가정에서 한 자녀라는 자신의 입장은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첫째 그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에서 영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둘째 그녀는 지상에 계신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세째 그녀는 장인하고 선량한 선조의 피를 이어받은 딸입니다. 그녀에게는 수 많은 세대의 선조

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살아 있는 가까운 친척의 가족 역사를 현집할 수도 있고 계보 탐구도 할 수 있으며 종친회에 참여하거나 이를 조직할 수도 있고 자신의 가족을 위해 신전 사업도 할 수 있으며 그외에도 자신의 기록을 남기는 일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로서 그녀가 갖는 여러 가지 입장 이외에도 그녀는 형제나 자매의 가족과도 유대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때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그녀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양육하는 역할을 맡는 부모의 입장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것은 회생, 봉사, 교육이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독신 자매들은 상호부조회 어머니 공과 과정을 이수하거나 가사 기술을 습득하고 가정에서 필요한 물건을 장만하거나 공식적인 조직(초등 협회, 유년 주일학교 등)이나 비공식 조직(이웃, 친구, 친척 등)을 통하여 어린이들과 어울릴 기회를 가짐으로써 앞으로 자신이 이를 가정을 위해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은 교회의 독신 회원에 관해 관심을 표명하시며 그들은 남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고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가정에 반려자가 없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남편이나 아내를 잊고 아직 새로운 반려자를 찾지 못한 사람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성실하고 용감하였고, 지상에 왕국을 건설하고 이웃을 돋는 일에 앞장섰던 훌륭한 교회 회원이 계십니다.

“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앞을 막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내십시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절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들

을 위해 봉사하며 직장이나 가정에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일을 훌륭히 처리해 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러한 일을 시작하여 영생의 기쁨을 맛보십시오.

“자기 연민이나 실망에 빠져 옳다고 알고 있는 길에서 이탈하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돋는 일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은 특별한 뜻이 있다고 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마 10 : 39)

“예나민 왕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함은 너희도 지혜를 배우게 하여,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 합이라 (모 2 : 17)

“하나님께서는 말일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며 다음에 올 세상에서 해의 왕국의 승영에 이를 기초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해롤드 비 리, 가정을 강화함, [솔트레이크시티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재단 법인, 1973년] 8 페이지)

진정으로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교회 회원이라면 최고의 목표를 승영에 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재능을 개발하는 일을 계획한다면 해의 왕국에서 온전해지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창세 이전 천국 회의에서는 우리가 살 세상에 관한 분명하고도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되었었습니다. 전세에서 볼 수 있는 예를 통해서 우리는 노력을 기울이기 전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합니다.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우리는 여러 가지로 덕을 볼 수 있습니다.

(1)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안다면 우리가 가지 않아야 할 곳을 쉽게 결정할 수 있다. (2)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우리는 “나는 현재 어디에 있나?” “나는 현재 처한 곳에서 목표를 향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3) 목표를 마음 속에 두고 있으므로 언제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된다. (4) 분명하게 설정된 목표는 행동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5) 목표는 우리의 정력을 한 곳에 집중시켜 낭비하지 않고 일을 달성하게 해 준다. (6) 분명하게 정의된 목표는 확신을 주며 실망을 느껴도 이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독신 자매들은 자신을 원만한 인격자가 되도록 도울 여러 가지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목표에는 (1) 영적인 발전, (2) 사교적인 면에서의 발전, (3) 가족 관계에서의 발전, (4) 대인 관계에서의 발전, (5) 직장에서의 발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젊은 여성은 실질적으로 인생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권고하셨습니다. “나도 역시 젊은 여성이 인생의 계획과 확고한 목표를 일찍부터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결심이 고귀하고 훌륭한 것이 되게 하십시오. 자신은 물론 남을 위해서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하십시오. … 여러분의 마음을 고상한 생각에 고정시키십시오. 좋은 화제를 찾아내십시오. 여러분의 목표나 포부를 크게 간직하십시오. 어떠한 인간도 동료와 완전히 절연을 하고는 살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유익하고 도움이 되며 자립할 수 있을 정도에서 독립심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

하는 일을 부인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몸과 두뇌를 이용하여 최선을 다해 봉사하며 어떠한 노력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손실과 악에 빠지는 일이 없이 바람직한 길로 들어서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훌륭한 친구를 사귀십시오. 항상 친절하고 명랑하며 선한 일을 추구하고 인생의 의무를 잘 이해하여 여러분과 사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도록 자신의 인생을 잘 활용하십시오…

“여성은 갈대와 같이 연약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체적으로는 그들이 약할는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확신을 갖고 있는 여성은 파연 어떤 남성이 펼쳐할 수 있겠습니까? … 그들은 항상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며, 안정, 신성함, 도덕과, 신념에 있어서 남성의 조력자가 되어 왔습니다. …

“그리고 나는 젊은 자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이용하고 악으로부터 멀리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나의 말을 명심한다면 여러분은 고매한 인격을 통해 보람된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지역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인생의 어떤 것을 희생하고라도 위엄과 온전함과 미덕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비록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과정을 택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훌륭한 이상적인 여성으로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미덕을 소유한 여성이라면 어떠한 남자라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조셉 에프 스미스, 복음 교리, [솔트레이크시티 : 레저렛 출판사, 1939년] 351, 52페이지)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는 예에는 여

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독신자의 수만큼이나 그 이유도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강상의 이유, 직업상의 제약, 대인 관계에서 오는 책임감, 기회가 없는 경우, 높은 표준만을 추구하는 경우, 실연, 배우자를 찾는 일의 불안감, 결혼해서 부모가 되는 일에 자신이 없는 경우 등 그 이유는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흔히 선교 지역에서는 적당한 배우자를 찾을 기회가 없어서 혼기를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자매들이 교회 밖의 남성과 결혼을 해서 위험을 겪느니 보다는 차라리 독신을 지키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빅터 엘 브라운 감독은 교회에서 적당한 배우자를 찾을 수 없는 사람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교회 내에서 이 성의 배우자를 만날 기회가 적은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자매의 경우 더하나, 형제는 이제 내가 언급 하려는 원칙을 적용하기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혼인 자매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실천하고 주를 믿는 신앙을 잔착한다면 반드시 의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권고합니다. 그것은 자매가 원하면 바가 아닐 수도 있으나 주님께서는 그녀를 사랑하시므로 의로운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훌륭한 남성은 많으며, 만일 미혼인 자매가 그러한 남성과 결혼하기 전에 복음을 가르칠 만한 신앙을 갖게 되고 그 남자가 그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복음에 귀의해서 침례를 받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그녀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매는 인내심과 남다른 신앙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신앙을 지닌 많은 자매를 교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빅터 엘 브라운 감독과의 인터뷰, 성도의 벗, 1973년 11월호)

결혼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든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든 그것은 승영에 이르는 필수 요건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결혼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남성도 여성 없이는 해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거나 승영에 이를 수 없으며, 어떠한 여성도 혼자서는 온전함이나 하나님 왕국의 승영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결혼 의식을 제정하셨습니다.”(조셉 에프 스미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회 보고, 1913년 4월, 118-19페이지)

결혼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여성에게만 찾아 오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독신 남성은 보다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구혼을 하는 과정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적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을 해야 한다는 중요한 계명을 무관심하게 생각해 버리거나 결혼 생활에서 오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 젊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승영이란 책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고는 승영에 이를 수 없습니다.”(구원의 교리, 2:74)

교회 회원이나 신권 소유자로서 그들에게 오는 압력을 제쳐 놓고라도 많은 독신 남성은 또 다른 문제에 당면하게 됩니다. 즉 남성이 여성들로부터 구애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결혼을 한 어느 형제는 와드에서는 자매의 수가 형제의 2배였다고 말하고 계속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남성은 구애 과정에서 여성이 주

도권을 잡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아내가 된 자매에게 매력을 느낀 점도 바로 그녀가 남편감을 고르는 일에 너무 국성을 보이지 않은 때문입니다.”

베르린 스테이크의 시어프카 부장은 공격적인 자신의 태도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시어프카 부장은 의사이며 전쟁이 끝날 무렵 베르린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교회 회원이었습니다.

“나는 전쟁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 올 수많은 남성을 기다리면서 일하던 수백명의 미혼 간호원들 틈에서 일하던 유일한 독신 총각이었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시어프카 부장은 아내를 찾았던 것입니다.

“나는 그녀가 나를 돌아 보지도 않던 몇몇 소녀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시어프카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만 여성의 심리를 이용하여 좀 수줍어했을 뿐입니다. 그 작전이 들어 맞아 1947년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시어프카 자매는 결혼하기 이틀 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약혼자는 저에게 침된 교회에 대해서 가르쳤으며, 그 제서야 제가 알고 있던 종교는 많은 점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된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특별히 결혼하기 직전에 남편될 사람으로부터 침례를 받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처치 뉴스, 1974년 2월 23일자)

인생의 영원한 반려자가 되는 데에는 많은 것들이 양편에서 모두 요구됩니다. 여성은 나태한 습성을 길들

이거나 타인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을 돌보면서 해의 왕국의 결혼에 이를 수는 없읍니다. 여성은 원만한 성품을 갖추고, 자기에게 독특한 기술이나 재능을 개발하여, 지식을 습득하고, 위엄을 지녀야 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여성은 하나님의 빛답게 보여야 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리 대관장님께서는 말일성도 여성은 참된 여성임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여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말일성도 여성의 참된 본보기로서 생각, 믿음, 생활, 행동, 복장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여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본체를 합당하게 지키고 보존해 간다면 그러한 여성은 남편의 침된 사랑을 받게 되고 자연스럽고, 순결하고, 사랑스러운 여성임을 찬미하는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매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여성임을 되라는 것입니다.”(해롤드 비리, 상호부조회 대회 말씀, 1972년 4월)

열 처녀의 비유는 참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25 : 1-13참조)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을 등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준비가 되었으므로 기회가 왔을 때 떠를 수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그대로 남고 말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돈된 생활을 하고 있는 독신 말일성도 자매는 승영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기회가 와서 그녀가 그토록 오래 기다리던 영원한 반려자가 나타나도 그녀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문제는 결혼 상대자를 발견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옳지 못한 선택을 피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은 결혼 상대자를 택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권고하

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생은 짧으나 영원이란 끝이 없이 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혼 성약이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임을 생각할 때 결혼 문제를 주의깊게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에서 서두르며 성급한 행동을 보인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없는 슬픔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영원히 참아야 할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속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에 충실하며 주님의 복음에 대해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남편감을 발견하지 못한 자매라면 차라리 혼자서 그러한 복음의 축복을 맛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에서 구원을 엽느니보다는 이 세상에서 인내의 고통을 맛보다가 영생을 얻는 편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께서 진실하고 성실하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생에서 얹은 것보다도 훨씬 가치가 있는 기쁨과 영원한 반려자로 여러분을 크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구원의 교리, 2 : 77, 8)

말일성도 자매는 결혼을 했거나 그렇지 않았거나 간에 자신을 온전히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남편과 함께 해결하면 쉬울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결혼한 자매들도 그들대로 문제와 시련과 어려운 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혼을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낙원으로 생각하는 것은 현실을 망각한 생각입니다. 그러한 여성은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현재를 무시하고 있으며 복된 미래만을 꿈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에 오는 세상에 대해서 잘못 알아 엉뚱한 기대를 갖고 있듯이 결혼 생활에도 잘못된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애에서 너희 육신을 다스린 그 영이

영원한 세상에서도 너희 몸을 다스리리라”(엘 34 : 34) 현재 사람이 지니고 있는 모든 속성이나 결함이나 미덕은 모두 결혼 생활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결혼 생활과 이에 수반해서 오게 될 시련에 대해 대처하도록 보다 잘 준비된 여성이 보다 큰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신으로 지내는 기간은 준비의 기간으로 혼명하게 활용되어야 합니다.

풍요하고 보람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미혼 말일성도 자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표를 융통성과 창의력을 지니고 이루어나갈 때 만족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독신 여성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지녀야 합니다.

1. 주님과 가까이 함.
2.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함.
3. 결혼은 개인의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함.
4. 보람있게 미혼 시절을 보냄.
5. 인내심을 지님. (이 생에서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합당하게 살면 다음 세상에서 기회를 얻음.)
6.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함.
7. 왜 결혼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이해하고 결혼을 할 수 없었던 점을 너그럽게 받아 들임.
8. 가족 관계에서 볼 수 있는 폭넓은 사랑을 나타내 보임.
9. 남성과 여성의 영원한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함.
10. 영원한 반려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함.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자매는 연령이나 환경이 어떠하든 영원한 관점에서 보아 보람있게 자신의 미혼 시절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승영이란 애써 노력해서 얻을 만한 가치있는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頤

## 사도의 생애에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

# 리드 스무트 장로

### 약력

리드 스무트 장로는 1862년 1월 19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태어났고 유타주 프로보에서 자랐다. 그의 부친인 에이브라시 오 스무트는 솔트레이크 시티 2대 시장, 프로보 시장을 역임한 분으로 브리감 영 아카데미의 창설자 중 한 분이었다. 그의 모친인 앤니 커스틴 모리슨은 놀웨이에서 개종하였고, 새로운 종교를 따라 고향을 떠나서 유타로 온 분이었다.

리드 스무트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동안 월리암 월즈와 칼 메져 박사 밑에서 학교를 다녔다. 1872년 가족이 프로보로 이사를 하였고, 여기서 그는 메져 웅 대학 분교에 다녔다. 1876년 4월에 브리감 영 아카데미가 개원하자 그는 제1번 학생으로 등록을 마쳤다. 그는 그 당시에 마련된 고급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고 1879년에 상과 계통의 공부를 끝으로 그곳을 졸업하였다.

기업인으로 성공한 스무트 장로는 1890년 유럽 선교부장으로 부름을 받고 떠났다.

1895년 그는 유타 스테이크 에드워드 파트리지 부장의 보좌로 부름받았다. 1900년에 사도로 지지되었고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으로부터 성별되었다.

1903년 1월 그는 미국 상원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스무트 장로는 30년간을 탁월한 상원 의원으로서 이름을 높치며 봉사하였다. 유타 출신 상원 의원인 그는 교회의 좋은 이미지를 심는 데 가장 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다.

1933년 상원의 임기를 마치고 유타로 돌아온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크게 활약을 하였으나 곧 전장에 잊게 되었다. 41년간을 사도로서 봉직한 그는 1941년 2월 세상을 떠났다.<sup>1)</sup>

제이 루벤 클라크 부대관장은 스무트 장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나는 이 교회의 회원으로서 금세기의 최대의 선교사라고 생각한 사람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 오게 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바로 존경하는 리드 스무트 장로입니다.”

“나는 그분이 상원 의원이 되셨을 때 동부로 이사를 갔었었습니다. 나는 그때 그곳에서 우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좋지 못한 감정을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물론이었다는 사실에 조소와 멸시를 보낸 사람들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스무트 장로가 의원직을 맡았던 30년 동안 나도 그와 비슷한 환경에서 많은 기간을 동부에서 보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지혜로 판단해 보건데 한때 조소와 멸시를 보냈던 사람에게 지금은 영예와 존경을 보낼 수 있게 한 이러한 변화를 낳기 위해 그가 이루어 놓은 큰 업적에 필적할 만한 것이 가히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욱이 스무트 위원은 이 나라를 위해서도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혼신적인 봉사를 한 분입니다.”<sup>2)</sup>

### “사랑하는 부모님께 딸 커스틴이 드립니다”

나는 윗소 형제와 함께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유럽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임무를 떠고 떠난 이번 여행에서 윗소 형제의 도움으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제국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시간을 내어서 어머니의 옛 고향을 들렸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에 늘 어머니께서 우리가 고향에 가 볼 날이 올거라고 말해 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일을 미루어 오다 보니 어머니는 60세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만간 어머니의 고향을 찾아 친척들을 만나 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수천 번이나 어머니께서 여닫으셨을 문과 어렸을 때 어머니가 들려 주시던 뒷뜰의 샘터를 보고, 외할머니가 손수 정성들여 심으셨다는 나무 그늘 아래 서서 주변을 둘러 볼 때 이 순간에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이 가슴 속에서 치솟아 올랐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어머니에게 전달되었고, 어머니께서는 어린 소녀 때에 그것이 진리임을 아셨다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친척이나 부모들의 온갖 반대와 박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어머니의 간증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나의 사촌은 나에게 다 낡은 가족용 성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결장을 열고 보다가 마지막 페이지의 맨 아래에서 “안나 커스틴 모리”라고 적힌 글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윗소 형제에게 그것을 빨리 적어 보내어 나에게 설명해

\* 레온 알 하트손 편, 사도의 생애에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 솔트레이크 시티 : 메져 웅 출판사, 1973년 허가를 얻어 게재함.

1. 리드 스무트 상원의원을 추모하여, 브리감 영 대학 도서관, 1966년

2. 대회 보고, 1933년 4월, 102페이지.

달라고 부탁했읍니다. 나는 글자 하나하나를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 그녀가 자기의 믿음을 부인하고 돌아 와 용서를 빌게 되기를 바라면서 딸을 쫓은 사랑하는 부모님께 집을 떠나면서 남긴 편지였읍니다. 그 당시 어머니는 한낱 어린 소녀에 불과했었으나, 그 편지의 내용에서 그녀의 성품과 정신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시간을 내서 여러분께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복음을 위해 서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도 희생할 수 있었던 우리 선조들의 정신이 담긴 그런 내용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선교 정신으로 가득 찬 내용입니다. 이 편지는 어머니가 직접 쓰셨으며, 조국과 부모님과 고향을 사랑했으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사랑했던 한 소녀가 적은 마지막 작별의 인사였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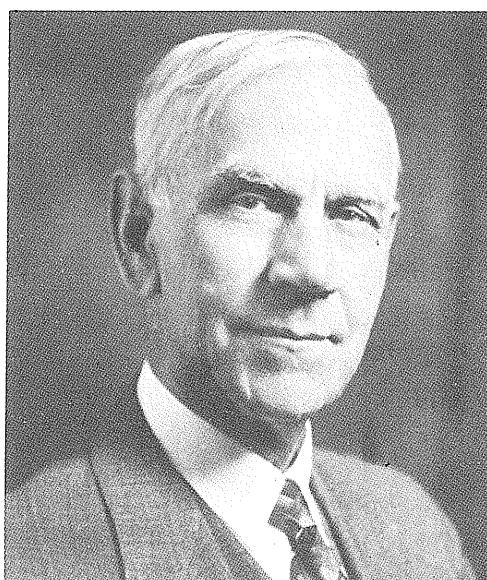
사랑하는 부모님께 딸 커스틴이 드립니다. 저는 이 책에 담긴 회복된 위대한 진리를 부모님께서 받아 들이시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거부된 진리가 하나님의 재림의 큰 날에 관해 부모님께는 간증이 될지도 모르겠군요. 저는 우리가 그 큰 날에 함께 기쁨과 행복 속에서 만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충실한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이룬 업적대로 상을 받게 되리라”라는 말씀을 듣게 되기 빕니다. 부모님께서 진리를 받아 들이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 때문에 저는 남몰래 애태우며 눈물을 흘렸으며, 또한 인간들의 불경한 태도를 생각하면서도 많은 눈물을 흘렸읍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목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뜻에 따르거나 아니면 벌을 받거나 하게 될 날이 눈 앞에 다가오고 있읍니다. 만군의 주께서 곧 세상을 통치하시려 오실 것입니다. 죄와 악이 사라질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합당한 무리 가운데 서시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러한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이 성경의 침된 목적을 이해하게 되고, 죄의 짐을 덜어 버리게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겠읍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주기 위해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영생으로 인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1954년 9월 1일 커스틴 모리 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읍니다. 나는 나를 넣어 주신 어머니의 간증을 부끄러워



“저는 어머님께서 진리를 알고 받아들이게 되기를 비는 마음으로 남모르게 여러 밤을 눈물속에서 새웠읍니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어느 곳을 가거나 그 곳이 왕이 통치하거나 군주가 있거나 어떤 사람이 있든지 내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대회 보고, 1923년 10월, 76-77페이지)

###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그가 아직 어렸을 때 브리감 영 대관장이 대회가 열린 유타주 프로보에 와서 뉴욕에서 한 말을 샌프랜시스코에서도 듣게 될 날이 멀지 않아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드의 어머니는 그를 이 대회에 데리고 갔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는 브리감 영 대관장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훌륭한 신앙을 지녔던 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넌 브리감 영 대관장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성취될 날을 보게 될 거란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미국 상원 의원이 되었으며, 통신 방송 시설이 확장되어 뉴욕에서 샌프랜시스코까지 직통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원 의원으로 있는 한 동료가 마침 이 통신 사업을 맡고 있었는데, 이 시설이 완공되어 기념식을 갖게 되었을 때 그는 리드 의원을 뉴욕으로 초청하였습니다. 그에게 첫번째로 통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그의 음성이 대륙을 넘어서까지 분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문자 그대로 수십년 전 유타주 프로보에서 브리감 영 대관장이 하신 약속을 성취하였던 것입니다.

헝클리, 개척자 선조의 신앙, 207페이지

### “나는 서슴치 않고 집사직을 택하겠네.”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대통령 재임시 우정 장관을 지낸 제임스 에이 팔리는 크리드 헤이몬드 박사는 이야기하는 중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전국적으로 명성을 좀 얻은 민주당원이었고 리드 스모트는 공화당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가 미국에서는 가장 훌륭한 외교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사태의 진전 상황을 잘 알았으며, 많은 집회에도 참석하였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주변 정세에 가장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좀 더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정통한 소식통을 통해서 나는 그가 자기의 종교만 버리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받게 하겠다는 당의 제의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는 몰몬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지명을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헤이몬드 박사는 이렇게 말을 계속했다. “이 일이 있은 지 15년이 지난 후 스모트 의원이 나의 사무실에 들른 적이 있었는데, 나는 이야기를 하던 중 제임스 팔리가 한 이야기를 꺼냈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는 공화당 전당 대회에서 두 차례나 종교를 떠나면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겠다는 제의를 받았읍니다.’

“나는 그래서 그에게 ‘그건 해볼 만한 일이 아니었느냐’고 물었읍니다.

“그는 내 주위를 땜돌더니 팔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여보게 자네는 내가 교회에 대해서 갖는 마음을 모를 걸세. 내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집사직이나 미국 대통령직 중 하나를 택해야 할 입장이 된다면 나는 서슴치 않고 집사직을 택하겠네’”

헝클리, 개척자 선조의 신앙, 201-202페이지

### “스모트 의원께서는 제 술이 싫으신 모양이지요?”

간증을 잊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간증을 부끄러워한 적이 결코 없었읍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손짓을 하며 “저 사람은 자기가 공언한 말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을 결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참석한 대부분의 모임에서, 또는 워싱턴의 부유한 사람들이 베푸는 대만찬에서는 예외없이 술이 대접되었으나 나는 한 모금도 마신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어느 여성의 베푸 호화로운 대연회에서는 참석자의 탁자 위에 세 가지 각기 다른 술이 대접되었읍니다. 연회가 끝날 무렵 그 여주인공은 내가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는 내게 와서 “스모트 의원께서는 제 술이 싫으신 모양이지요”라고 물었읍니다.

나는 우리가 지키는 지혜의 말씀을 그녀에게 설명해 주었읍니다. 나는 그런 뜻에서 들지 않은 것이니 오해하지 말라고 부탁하였읍니다. 내가 이처럼 모임이 있을 때마다 술을 들지 않게 되자 워싱턴에 있는 고위 인사들은 내가 술을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나는 내가 공언한 대로 또한 나의 종교가 가르치는 대로 행동할 만큼 강한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이를 수 있는 방편을 마련치 아니하고서는 결코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대회 보고, 1953년 10월 116페이지) 頓

# 위대한 여성

아타 엠 헤일

**성경** 일단의 여성이 모여서 이 세상에서 여성이 갖는 역할에 관해 사적인 이야기를 주고 받고 있었읍니다. 대부분이 아내나 어머니가 된 것을 큰 축복으로 여겼으나 그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은 자기가 경험했던 직장에서의 혹심한 차별 대우에 관해 불평을 털어 놓았읍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하고 다른 여성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시대에 살지 않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야 해요”하며 그녀는 와스디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읍니다.

## 페르사의 왕후 와스디

기원전 500년경의 페르사는 127개의 도를 가진 대제국으로, 왕 아하수에로는 각도의 방백들을 위하여 궁성 정원에서 대연회를 베풀 준비를 하였읍니다. 연회가 철일째로 접어든 어느날 왕은 술에 취하자 왕후 와스디를 명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쓰고 왕 앞에 나오게 하여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백방들에게 보이게 하였읍니다.

왕후는 이를 거절하였읍니다. 왕 아하수에로는 몹시 화가 났읍니다. 그는 법과 재판에 능한 방백 일곱을 불러 이렇게 물었읍니다. “왕후 와스디가 내시의 전하는 아하수에로의 왕명을 쫓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꼬”

모무간이라는 방백이 이에 이렇게 대답하였읍니다.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 방백과 뜻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실진대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번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분포되는 귀천을 무론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라”(예 1:15-17, 19-20)

이 말에 왕과 방백들은 기쁨을 금치 못하였읍니다. 아하수에로는 각 도에 조서를 내려 모든 남편은 자기의 집에 조서를 걸어 놓고 그의 아내를 다스리게 하였읍니다.

모든 관습이 많이 바뀌어 여성들도 과거보다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읍니다. 남자나 여자는 모두 그의 창조

물이며, 그는 언제나 그들을 아들과 딸로 사랑하셨습니다. 여성의 직분은 남성과는 다르지만 남성에게 주어진 직분과 마찬가지로 중요하여 영혼을 살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언자요 지도자였던 엘리야를 위하여 봉사하였던 여인이 그녀가 원하는 대로 생활의 넉넉함과 주님의 영과 간증의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읍니다.

## 엘리야에게 제공한 여성

이스라엘에 삼년의 가뭄과 기근이 있은 후 주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명하여 시돈 북방으로 가라고 하셨고, 또 이렇게 이르셨읍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궤하게 하였느니라”(열상 17:9) 엘리야가 도착했을 때 그 여인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인에게 물 한 잔과 떡 한 조각을 청하였습니다. 그녀는 떡은 없고 다만 조그만 떡 두 덩어리를 만들 만큼의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라고 대답하였읍니다. 그녀는 그것으로 떡을 해먹고 나면 자기와 아들이 곧 죽게 된다고 말했읍니다.

엘리야는 먼저 가서 자기를 위하여 떡을 만들고 그런 후에 그녀와 아들을 위해 떡을 만들며 기근이 끝날 때까지도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그 여인은 선지자의 말대로 하였으며, 엘리야가 그곳에서 여러 날을 머물었지만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읍니다.

기근 동안 그 여인의 아들은 심한 병에 걸렸으며,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읍니다. 엘리야는 그 죽은 아들을 자기 방에 안고 가 주님께 아들의 영이 되돌아 오게 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 아들은 되살아 났으며, 엘리야는 그를 어머니에게로 테려다 주었읍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열상 17:24)

오늘날 교회에 들어 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여인들도 많읍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희생을 알고 계시며, 고대의 롯이 두려움 없이 주님께 귀의했을 때 축복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큰 보상으로 축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 롯이 받은 보상

엘리 벨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과 함께 유대에서 살고 있었읍니다. 흥년이 들자 그들은 사신을 섬

기는 모압 지방으로 옮겨 갔습니다. 거기서 엘리멜 레이 죽고 그의 두 아들은 모압의 젊은 여인이었던 오르바와 룻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는 고향인 유대를 떠난 지 십여년이 넘어 고향과 백성들이 그리웠습니다. 그녀는 고향에 가서 살기로 결심하고 며느리를 불러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일렀습니다. 모압에서 그들은 재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르바와 룻은 나오미가 작별 인사를 전하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르바는 가족에게로 돌아 갔으나 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종교로 귀의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나오미에게 매달리며 이렇게 애원했읍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룻 1 : 16)

나오미와 룻은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할 때쯤 베들레헴의 고향에 돌아 왔습니다.

룻은 판례에 따라 추수꾼들이 훌린 보리를 쫓아 시어머니 나오미를 대접하고 자신도 생계를 이었읍니다. 룻이 보리를 쫓던 밭은 보아스의 땅으로, 그는 나오미의 남편과 친척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보리밭을 나왔다가 룻을 보고는 추수꾼들에게 누구인지를 물었읍니다. 그들은 그녀가 모압인으로 나오미의 며느리이며, 열심히 일을 하였다고 말했읍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자기 밭에서만 보리를 줍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생을 하지 않게 되었으며, 일꾼들이 주는 식량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읍니다.

룻은 보아스 앞에서 절을 하면서 왜 이방인인 자기한테 그토록 친절을 베푸는지를 물었읍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면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응보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 온 네게 온전한 상주시기를 원하노라”(룻 2 : 11-12)

주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한 룻에게 크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후에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들 오벳을 낳았읍니다. 오벳을 통해 룻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으며, 그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었읍니다.

말일성도 여성은 교회의 표준과 목표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가족인 남편이나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여성은 참으로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마 10 : 39) 이러한 여인은 자신의 명예나 찬사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돋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가정 안팎에서 해야 할 봉사에 균형을 잊지 않습니다. 이러한 여인은 가정과 가족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여성은 에스더처럼 주님의 지지와 도움을 받게 됩니다.

#### 에스더의 희생

예루살렘에 적의 수중에 들어갔고, 그곳 주민들은 노예로 동부 적국으로 끌려갔읍니다. 아하수에로왕이 페르샤 제국의 왕이 될 때까지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의 여러 도에 흩어져 살았읍니다.

왕후 와스디가 왕 앞에 나타나길 거절하여 왕후의 신분을 잃게 된 후 각 도의 방백은 아하수에로왕에 선보여 왕후로 간택되게 할 처녀를 찾게 되었읍니다.

도성 수산에 모르드개라는 유대인이 살고 있었읍니다. 그는 삼촌 딸 에스더의 부모가 죽자 그녀를 자기 집에 테려다 친자식처럼 길렀읍니다. 탁월한 용모와 자태를 지닌 에스더는 다른 시녀를 따라 왕후 후보로 선을 보이려 궁성으로 들어 갔읍니다.

수개월간 준비를 하고 치장을 한 후 마침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설 차례가 되었읍니다. 왕은 그녀를 왕후로 맞았고 그녀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 주었읍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얼마 되지 았어서 모르드개는 두 명의 내시가 왕을 모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리를 전해 듣고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다시 이 사실을 왕에게 고하여 왕의 생명을 구하였읍니다.

아하수에로왕은 자기 다음 가는 권력가로 하만을 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에게 절을 하도록 명령이 내려졌으나, 그가 유대인을 미워하였으므로, 모르드개는 그에게 절을 하지 않았읍니다.

노여움에 가득찬 하만은 왕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나라의 법을 쫓는 백성이 이 땅에 있다고 왕에게 고하였다. 왕은 하만에게 그런 자는 남녀노소 빈부 지위를 막론하고 모두 처단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자신의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게 된 유대인들은 눈물로 지새우며 금식과 기도를 계속하였읍니다.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자기 백성을 위하여 왕에게 간청하도록 부탁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왕후였으므로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는 않았읍니다. 궁성에는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으며, 그녀는 자기 백성의 요구를 무시해 버릴 수도 있는 처지였읍

니다.

모르드개의 간청에 에스더는 왕은 그의 손에 홀을 들고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이 그앞에 나타나면 모두 처형하고 만다고 대답했습니다. 에스더는 근 30일간을 부름받지 않고 있던 터이라 놓시 두려워 하였습니다.

모르드개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후로 만드셨을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에 에스더는 다음과 같은 말을 모르드개에게 전하였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이면 죽으리이다”(에 4 : 16)

모르드개는 에스더의 청대로 하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에스더는 왕후복을 입고 아하수에로왕이 왕좌에 앉아 있는 내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은 그녀를 보자 황금홀을 내밀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에 5 : 3)

이에 에스더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오늘 내가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에 5 : 4) 왕은 쾌히 승락하였습니다.

연회가 베풀어지는 중에 왕은 다시 에스더에게 무슨 청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에스더는 다시 왕과 하만이 아침에 자기가 베푸는 잔치에 나와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간 하만은 자기에게 있었던 영광스런 일들을 아내 세레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만에게는 단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는데, 이는 그가 궁성 문을 나설 때 모르드개가 그곳에 있었으나 그에게 절을 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세레스는 그날로 그를 달 사형틀을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 기쁜 마음으로 왕후의 잔치에 나갈 수 있고 왕에게 모르드개를 형틀에 달아 죽게 말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만은 아내의 말대로 형틀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날 밤 아하수에로왕은 잠을 이루지 못하여 왕궁의 일지를 읽히게 하였습니다. 그 일지 속에서 모르드개가 왕의 생명을 노리던 두 내시를 고하여 왕의 생명을 구했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왕은 모르드개에게 어떤 상과 존귀가 주어졌는지를 물었습니다. 그의 종은 “아무 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다”(에 6 : 3)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하만은 모르드개를 처형하게 해달라는 왕의 허락을 묻기 위해서 궁성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를 불러들여 이렇게 물었습니다.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뇨”(에 6 : 6)

하만은 그 말이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여 왕은 그런 사람에게 왕복과 왕관을 써워야 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하만은 또한 그를 왕이 타시는 말에 태워 성중 거리를 다니며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고 고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왕은 “너는…속히 유다 사람 모르드개에게 행하되…”(에 6 : 9-10)라고 명했습니다.

비통에 잠긴 하만은 왕의 명을 따랐습니다.

두 번째 잔치에서 왕은 다시 에스더에게 소청을 물었으며, 그의 왕국의 반이라도 주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온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내 민족이 죽임을…당하게 되었나이다.”(에 7 : 3-4)

왕은 에스더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뇨”

에스더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 니이다”(에 5-6)

왕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찼으며, 하만은 모르드개를 처형하기 위해 만든 사형대에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하만이 가졌던 모든 권세가 모르드개에게 주어졌으며, 페르샤 전역의 유대인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위해 여성이 미칠 수 있는 힘은 주님과 가정을 위해 사랑하고 봉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솔로몬 왕을 통해 여성의 가치는 재물 이상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잠 31 : 10-31) 그러한 여성의 남편은 아내를 신뢰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게 됩니다. 아내는 평생을 두고 남편을 위해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아내는 가정과 자녀를 돌볼 책임을 받아 들이게 됩니다. 가족을 위해 음식과 의복을 준비하며 계율리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됩니다. 지난한 자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게 됩니다. 말이나 행동을 통해 지혜와 친절을 보이게 됩니다. 자녀들은 그런 어머니에게 축복을 기원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여성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훌륭한 말일성도 여성은 이보다 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주부이며 두 자녀의 어머니인 혜일 자매는 초등협회 본부 임원으로 봉사한 바 있으며, 현재는 교회 가정의 밤 위원회의 일원이다. 혜일 자매는 보네빌 스테이크, 예일 와드 소속이다. 頃

# 가나안 정복

에드워드 제이 브란트

신학 연구원 대학 및 중등부과

요단강을 건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 그곳을 차지하게 하라는 주님의 명을 받았다. 가나안 전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성읍을 지켜 주는 첫 방어선 격인 여리고에 정탐자를 보냈다. 그들은 성내의 주민들이 몹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보고했다. (여 1-2)

요단강 물이 신권의 권세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멈췄다. 일년 중 강물이 가장 불을 때에 일어난 이 일은 백성들에게 큰 권능을 상징해 주었으며, 이제 이러한 권세를 여호수아가 가지게 된 것이다.

길갈의 야영터에는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기적과 같은 일을 기념하여 기념비가 세워졌다. (여 3-4) 길갈은



여리고 균처에 있으면, 그들이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전초 기지였다. 이곳에서 맷어졌고, 멸망의 천사가 이스라엘 자녀를 해치지 않고 넘어간 기념일 축제도 여기서 개최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따먹게 되자 만나가 더내려지지 않게 되었다. (여 5)

유의 사항 :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의 주요한 운동에 관해 간략하게만 전하고 있다. 그러나 수년 동안 정부 활동이 진행되었고, 주님께서 처음에 명시하신 조건대로 모든 일이 끝나지도 않았다. (신 7:9-16, 20:10-19)

### 중부 지역의 정복

먼저 여리고를 공격했다. 칠일간의 전투없는 포위 끝에 성벽이 무너졌고 성이 완전히 함락되었다. 이스라엘의 첨자를 도왔던 라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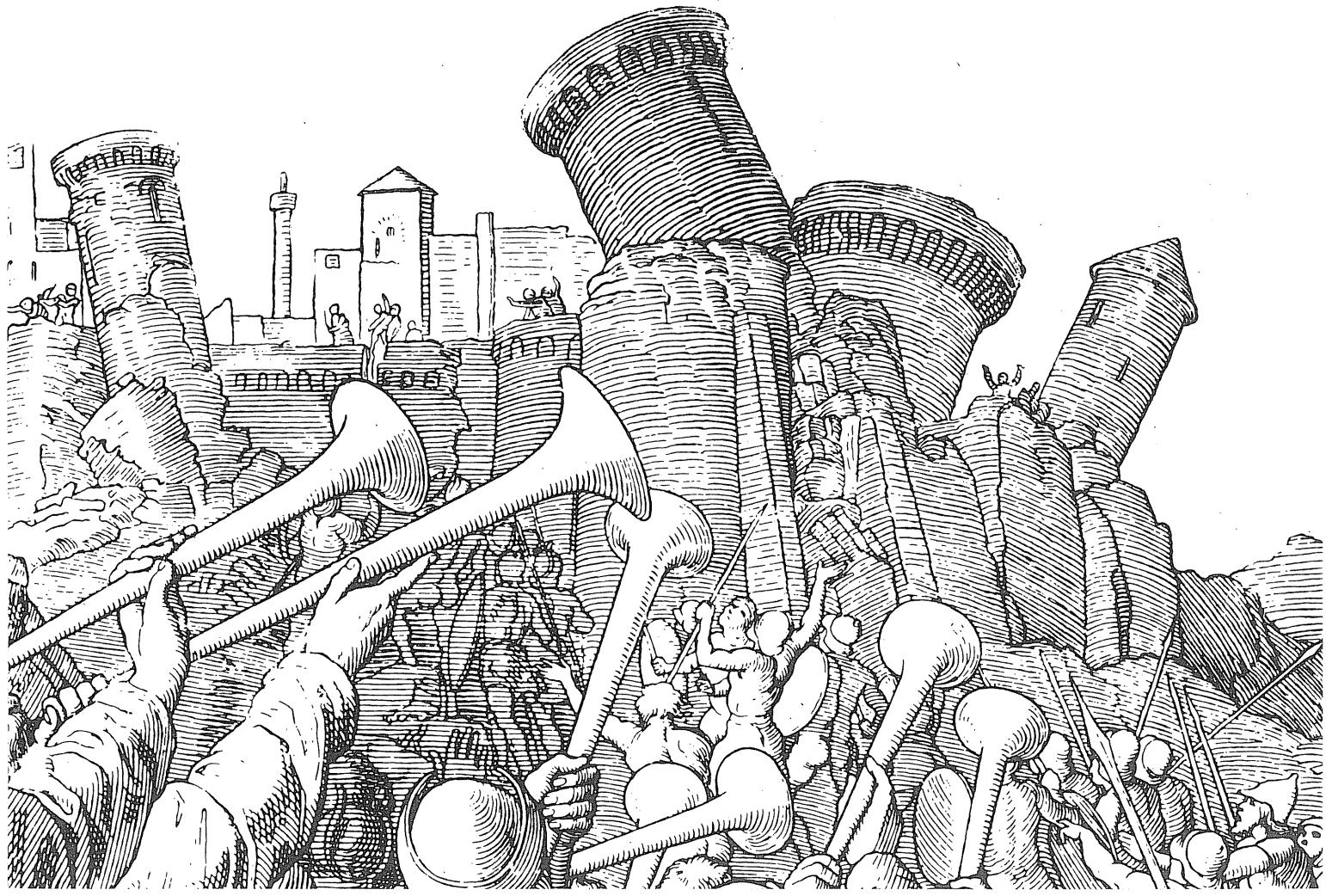
과 그의 가족만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여 6) 다음은 벤엘 균처에 있는 아이성을 공격했다. 제한된 병력으로 성을 포위하여 적극적인 공세로 나가겠다는 첫번째 계획이 무위로 돌아가자 여호수아는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유인 작전을 펼쳤다. (여 7-8, 앤마서 52:19-26 참조)

인근 기브온 국민들은 이스라엘인들이 두려워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파견하였다. 그들은 먼 곳에서 왔다고 거짓 고하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조공을 바칠 터이니 동맹을 맺자고 제의했다. 주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사악한 백성을 철저히 섬멸하라고 명하였으나(신 7) 여호수아는 그들을 살려 주겠다고 언약하고 약조를 맺었다. (여 9:1-15) 그러나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진 여러 성에는 화평과

충성의 서약이 제의되었다. (신 20:10-15)

그런 직후 여호수아는 기브온이 그 땅의 중심부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그곳 사신들이 거짓 맹세를 하였지만 그것을 성스러운 조약으로 믿고 존중하였다. (여 9:16-27)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조공하기로 한 약속은 수백년 동안 이행되었다.

이스라엘 자녀들의 힘이 막강하다는 것을 안 가나안 남부의 다섯 왕은 이스라엘과 기브온 동맹군을 멸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동맹을 맺었다. 그 다섯 왕은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리기스 왕, 에글론 왕이었다. (여 10:1-5) 함락된 기브온 백성들은 이스라엘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맺은 조약을 지켜 이스라엘 군대를 이



풀고 남부 여려 성을 공격하였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은 적을 물리칠 수 있었으며 도시 국가의 통치자들은 대패하여 도주했다. (여 10 : 6-14)

### 남북지역에 대한 침공

폐망한 왕들은 남쪽으로 도망하였고 라기스 군처의 동굴에 몸을 숨겼다. 이스라엘의 정탐자들이 이들을 찾아내었고 후에 이들은 모두 처형되었다. (여 10 : 15-27) 지도자와 군사력이 없는 남부 여려 성을 여호수아는 쳐들어 가서 립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을 정복하였다. 거셀 왕은 가나안인들을 도우려고 병력을 이끌고 라기스에 왔으나 그의 군대도 폐하고 말았다. (여 10 : 28-39)

여호수아의 군대는 남쪽으로 가데스바네아로 진격해 나가다가 가자를 통해 북으로 방향을 돌려 산간지대까지 진격해 갔다. (여 10 : 40-43) 가나안들이 심히 악화되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몇몇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수년간 더 가나안들과 싸워야 했다. (사 1 : 19-21)

### 북부지역에 대한 침공

가나안 북부에서 이스라엘군이 승승장구한다는 소문이 나자 북부지역의 여러 왕은 경계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들 북부 지역의 여러 왕은 하솔 왕의 지도 아래 동맹을 맺고 메롬강가인 그들의 전영에서 이스라엘군과 접전했다. 가나안인들은 패주했고 여러 성읍이 함락되었다. (여 11 : 1-4) 이러한 여러 차례의 전쟁으로도 모든 땅을 다 점령하지도 못하였으나 백성들이 정착할 기반을 마련해 놓았다.

유의 사항 : 이스라엘은 주요 산간지역과 요단강 전나편의 지역을 정복하는데 성공했다. 주력 부대는 많은 수가 점령한 땅으로부터 다시 쫓겨 날 위험을 제거하는 동안 멸하였다. 그들의 승전 기록은 그들이 어느 정도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지 알 수 있다. (여 12) 그러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

고 늙으니 백성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아직 얄은 땅이 많이 남아 있었다. (여 13 : 1)

그러나 일부 주요한 족속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상속 땅 변방에서 남아 살고 있었다. (즉 블레셋, 시돈, 페니기아인, 여 11 : 2-3, 사 3 : 1-4) 이스라엘 백성이 지배하고 있던 지역 내에 여러 성읍과 민족이 그대로 살고 있었다. (여 15 : 63, 16 : 10, 17 : 11-18, 사 1 : 22-36) 그곳에 남은 몇 민족은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성읍으로 주님의 계명에 어긋나나 그대로 남게 되었다. (사 1 : 27-28)

단 자손은 변방 내에서 사는 백성들을 통제할 수 없으므로 점차 북부로 이주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상속의 땅을 차지했다. (사 1 : 3-4-35, 17-18, 여 19 : 47) 이스라엘의 수도로 지정된 예루살렘에 살던 여부스족들은 수세기 후 다윗왕이 통치할 때까지 정복되지 않고 살았다는 점은 특기할 사실이다. (여 15 : 13, 사 1 : 8, 21, 삼하 5 : 6-9, 역 하 11 : 4-8) ■

한국과 일본에서 개최될 지역 대회

대관장단은 아시아의 두 지역에서 지역 대회가 개최된다고 발표하였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지난 주 1975년 8월 일본의 동경과 한국의 서울에서 주말을 택해 각각 3일간의 대회가 개최된다고 발표하였다.

동경 대회는 1975년 8월 8일, 9일, 10일인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십이사도와 기타 총 관리 역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대관장단의 감리로 개최된다. 일본에 있는 모든 교회 회원이 이 대회에 참석하

게 된다.

이 대회가 끝난 후 이들은 다음 주에 개최되는 한국 대회를 위해 서울을 향해 떠난다. 한국 대회는 8월 15, 16일, 17일인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일본에는 2개의 스테이크와 6개의 선교부가 있고, 총회원의 수는 22,653명이다. 한국에는 스테이크와 선교부가 각각 1개씩 있으며 회원 수는 8431명이다.

총 관리 역원을 도와 본대회를 주선하는 일은 다음의 십이사도 지역 대표가 맡게 된다 : 호놀룰루의 폴 씨 앤드러스, 호놀룰루의 에드 니 와이 고마쓰, 덴버의 에드워드 와이 오까자끼, 동경의 칸 와다나 베 또한 이 지역의 스테이크 부장

이나 선교부장도 본대회를 계획하는 일을 돋게 된다.

한국과 일본 대회의 일정은 영국, 멕시코, 독일에서 있었던 대회 일정과도 비슷하여, 지도자 훈련 모임과 교회 일반 회원을 위한 영적인 권고나 영감의 말씀이 있게 된다.

금요일 저녁에는 활동 및 사교 프로그램이, 토요일 오전과 오후에는 일반 총회가, 토요일 저녁에는 특별 그룹 모임이, 일요일 아침과 오후에는 다시 일반총회가 있게 된다.

대회에 참석하게 될 수 많은 지역 지도자 이외에도 두 나라 성도들로 구성된 대합창단이 많은 음악을 들려주게 된다.

20 성도의 빛 1974년 10월호



# 자신의 특별한 재능을 발견한 아이 람

로사리 더블류 도스 글  
딕크 브라운 그림

**성경** 아이 람은 요단 계곡에 있는 한 농장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막내동이로 하젠과 미가라는 두 형이 있었습니다. 하Zen은 자기 집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특별한 소리로 부르기만 하면 양들은 언제나 달려오곤 하였습니다. 그는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았습니다.

미가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수확기에는 그의 손에서 낫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그가 밭에서 낫질을 할 때면 날카롭게 훈 칼날이 햇빛을 받아 번쩍거렸습니다.

아이 람이 하Zen과 함께 양을 치는 일을 돌보려 할라치면 늙은 솟양에게

쫓겨 집으로 도망을 오곤 하였습니다. 미가와 함께 들에서 일을 하려고 밭으로 가면 낫에 손을 베어 집으로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이 람은 포도원에서 나와 함께 일하면 괜찮아. 내가 포도 따는 일을 가르쳐 줄테니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이 람은 또 다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포도잎의 아침 이슬이 마르기도 전에 그는 땅에 넘어져 발목을 빼고 말았습니다.

“난 어쩌면 좋지”하며 그날 저녁 아이 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아무 재주도 없으니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잖아 !”

아이 람의 어머니는 그를 달래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단다. 너도 남다른 특별한 재능이 있어.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그렇지만 그게 뭔데요?”하며 아이람은 물었읍니다.

“인내란다. 아이람아”하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읍니다. “너는 농장에서 다른 일을 계속해야 할거야. 그러면 너에게 알맞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단다. 그때 기쁨을 얻게 되며 다른 사람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그래서 아이람은 어머니를 위해 장작을 모았으며, 밭의 돌을 치우는 아버지를 도왔읍니다. “이런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하며 그는 투덜거렸읍니다. “밭에서 돌을 모두 모아 버리고 나면 나는 무얼하지?”

어느날 아이람은 밭의 돌무지 위에

앉아 진흙 길을 걸어가는 한 노인을 보았읍니다.

그 사람은 이상한 물건을 등에 지고 있었읍니다.

“시원한 물을 한 컵 마실 수 있겠니?”하며 노인이 물었읍니다.

“네”하고 아이람이 대답했읍니다.  
“치이즈와 전포도 갖다 드리죠”

“고맙구나 좀 먹었으면 했는데” 하며 노인은 반가운 듯이 대답했읍니다.

그 사람이 마시며 먹고 있을 때 아이람은 자기 옆 땅 위에 벗어놓은 이상한 짐을 자세히 보았읍니다.

호기심이 가득찬 아이람은 마침내

“그게 무엇이예요?”하고 물었읍니다.

“도자기 굽는 기구란다”하며 노인이 대답했읍니다.

“도자기와 항아리를 만드시나요?” 하며 접시에 또 다시 치이즈를 담아

가지고 들어 오시던 어머니가 물었읍니다.

“멋진 도자기를 만들었었죠”하며 노인은 한숨을 내쉬었읍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손이 말을 듣지 않아요.” 하며 그는 손을 내보였읍니다. 그의 손가락은 꼬이고 꾸불어졌읍니다.

“그런데 왜 그 도자기 굽는 기구는 빼고 다니시죠”하고 아이람은 물었읍니다.

“시내에 가서 팔 작정이죠”하고 노인은 측은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읍니다.

“도자기를 못만들게 되셨다니 참 안됐군요”하며 아이람의 어머니가 말



했습니다.

“정말 그렇군요”하며 하젠과 미가와 함께 막 돌아 온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올리브유를 담을 항아리가 많이 필요한데”

“물통도 부족한데요”하며 하젠이 말했습니다.

“곡식을 담을 큰항아리도 있었으면 좋겠어요”하고 미가도 말했습니다.

“나도 요리할 때 필요한 걸요”하며 어머니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서 며칠을 머물 수만 있다면 한 아드님에게 항아리 굽는 기술을 가르쳐 드릴 수가 있지요”하며

노인이 제의했습니다.

“참 좋으신 제안이군요”하며 아버지는 반가와 하였습니다. “도자기를 굽는데 필요한 좋은 흙이 있는 곳을 알지요”

그렇게 말씀하신 아버지께서는 아들들을 쳐다보시며 “누가 이 기술을 배우겠니?”하고 물으셨습니다.

“전 안돼요”하고 하Zen이 대답했습니다. “전 목동이잖아요. 하루 종일 양떼와 밖에 있어야 해요. 도자기를 굽는 법을 배우려면 한 곳에만 머물러 있어야 할게 아니예요”

“저는 멋진 도자기를 만들 재주가 없어요. 손이 너무 커요”하며 미가가

말했습니다. 그는 거친 손을 내보였으며, 모두들 보고는 한바탕 웃었습니다.

“제가 어쩔까요?”하고 아이 람이 자신이 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해보고 싶은데요.”

하Zen과 미가는 동생을 비웃었습니다.

“넌 솟양한테도 쫓겨나지 않았니”하며 하Zen이 말했습니다.

“낫질도 못해 손을 다치지 않았어”하며 미가도 말했습니다. 아이 람의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난 언제나 아이 람에게 무슨 일이고 했지. 이것도 한번 해 보라고 해야겠어”

그 늙은 도공은 침착하게 가르쳤으며 아이 람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한 줌의 진흙이 어머니에게 필요한 도자기와 아버지에게 필요한 올리브 항아리로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 아이 람은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손끝에 신비로운 힘이 달렸구나”하며 늙은 도공은 아이 람을 칭찬했습니다. 그는 아이 람이 만들어 낸 멋진 도자기들을 기쁜 눈으로 보았습니다.

“내가 너를 놀린 것은 잘못이었어”하며 하Zen도 아이 람이 만든 멋진 도자기를 보고 말했습니다.

“농장에서 쓸 항아리를 직접 만든다는 일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지”하며 미가도 아이 람이 자기에게 만들어 준 곡물 항아리를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이 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기의 특별한 재능을 발견했으며, 그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게 되어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風



## 캐로리나의 기도

루스 스완슨

**캐로리나**는 길게 늘어진 금발 머리를 휘날리며 맞바람에 몸이 밀리지 않게 몸을 지탱하고 산꼭대기에 서서 눈 앞에 전개되는 마을을 내려다 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 아래에는 스웨덴의 동부 해안으로 통하는 가블이라는 그녀의 마을이 조용히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을 지나 바다에 이르는 강에는 작은 배와 큰 배들이 점을 찍어 놓은 듯 펼쳐져 있었습니다.

캐로리나의 동생 에릭은 그녀의 손을 잡아끌며 마을 북쪽 끝에서 시작되는 푸른 숲의 언덕으로 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캐로리나는 4살된 동생 에릭을 보는 일에는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자고 조르는 곳은 어디고 데리고 다녔습니다.

“리나 저 배들 좀 봐!”하며 에릭이 소리쳤습니다.

리나는 에릭이 누이를 부를 때 쓰는 특별한 이름입니다.

“그래 참 아름답지”하고 리나가 대답했습니다. 저 멀리 빨체를 바라보다가 큰 화물선이 서서히 가블 항독크에 들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리나의 아버지는 독크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짐을 배에서 부리고 기차에 실어서 내륙 지방으로 수송하는 일꾼들을 감독하는게 아버지의 직업이었습니다.

“에리아 우리 이제 내려가서 짐을 부리는 걸 보자”

“그래 가자”하고 에릭이 지체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만 있다면 아빠도 그들이 그곳에 오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짐을 부리는 큰 나무통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내려다 보았으며, 일하는 아저씨들은 지나가면서 농담을 하시거나 미소를 지어 보이곤 하셨

웁니다. 큰 화물선도 보고 짐을 부리는 것도 보겠다는 기대에 차 그들은 언덕에서 급히 뛰어 내려왔습니다. 언덕 밑 평지에 내려와서 캐로리나는 에릭에게 이렇게 제의했습니다. “독크까지는 철길을 따라 걷자. 가까운 길이거든”

가는 길에 캐로리나는 아름다운 야생꽃들이 가득히 길가에 피어 있는 것을 보고는 한 아름 꺾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리나는 에릭의 손을 놓고 몸을 굽혀 아름다운 청색꽃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에릭은 철길의 침목을 깡충 깡충 뛰면서 리나보다 앞서 갔습니다. 갑자기 캐로리나에게 신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릭이 소리쳤습니다. “리나! 리나! 발을 다쳤어!” 캐로리나는 손에 들었던 꽃을 떨어뜨리고 에릭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에릭의 발이 침목 사이로 난 구멍에 빠져 꼭 끼고 말았습니다.

“리나 누나 빨리 발좀 빼줘!”하고 에릭이 고통스러운듯 소리쳤습니다. 캐로리나는 동생의 발목을 빼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에릭의 팔을 잡아 당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도 안되자 양손으로 허리를 잡고 힘차게 당겼습니다. 에릭은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구멍 속에 발이 들어 갔으므로 다쳤음에 틀림없었습니다.

“에릭아 울지마 곧 껴내줄께” 그러나 리나가 힘차게 당길수록 에릭의 고통은 더했습니다. 마침내 리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릭아 내가 가서 누구를 부르려 가야겠구나 내 힘으로는 안되겠어. 곧 돌아올께” 캐로리나는 산모퉁이를 돌아서 큰 행길을 따라 달

려갔습니다. 그가 모퉁이를 돌아 서는데 멀리서 기차가 나타났습니다. 도움을 청할 시간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수분 후면 기차가 이곳에 도달할 것이며 기관사 아저씨는 에릭을 보고 기차를 세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다시 에릭에게로 달려가는 리나에게 자꾸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리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리나의 눈물과 두려움에 떠는 누나의 모습을 보며 에릭은 더 크게 울었으며 누나를 양팔로 끼어 안았습니다.

캐로리나는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모릅니다. 에릭의 발목을 잡아 당기면서 리나는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도와 주세요.” 갑자기 그녀는 “구두끈을 풀려 봐라” 하는 조용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 네”하고 그녀는 대답하고 침목 사이에 꾹 껴발의 구두끈을 떨리는 손으로 풀었습니다. 그녀는 힘차게 에릭을 잡아 당겨 둘이 모두 땅에 주저 앉고 말았습니다. 기차가 모퉁이를 돌아 그들 옆을 지나갈 때 둘은 모두 안전하게 철길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기차가 지나가자 에릭은 “내 구두 좀 봐!”하고 소리쳤습니다. 구두가 몹시 쭈그려졌으나 캐로리나가 떴습니다. 캐로리나는 에릭에게 위로하는 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두 걱정은 하지마. 내 기도가 응답된 것을 감사해야 해. 난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었어” 그녀는 안도감과 기쁨으로 동생을 꼭 껴안았습니다. 구두를 신은 후 그들은 일어났던 일을 아빠에게 말씀드리려 함께 걸어 갔습니다. (실화) 頤



## 친구가 친구에게 :

### 모든 사람은 선교사임

에스 딜워스 영 회장  
(칠십인 제일 정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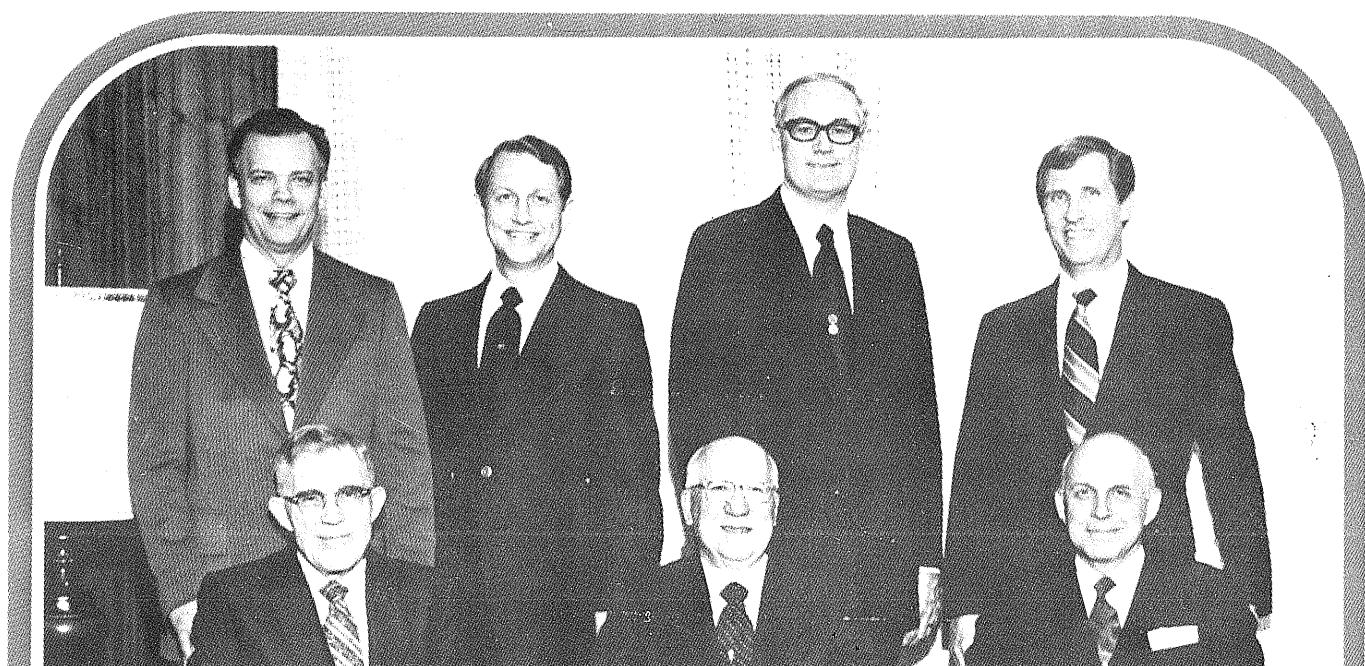
**OE** 전세계에 있는 교회 어린이들은 신앙개조 13조를 모두 배우게 됩니다. 이 영감에 찬 말씀에서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즐겨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믿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며 언제 순종하며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교회의 모든 일을 맡아 이끌어 가실 책임을 스펜서 더블류 캠볼 대관장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와 그가 우리를 이끌도록 부르신 지도자를 따라야 합니다.

대관장님과 그의 보좌이신 엔 엘론 태너,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님이 대관장단을 구성합니다. 대관

장단이 전 교회를 관리하지만 다른 지도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이사도 정원회로 알려진 정원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정원회란 하나로 통일된 목적을 위해 일하는 여러 사람이 모인 단체입니다. 이 사람들은 함께 상의하고, 대관장단을 도우며, 전세계에 다니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들은 함께 긴밀한 접촉하에 이야기를 나누고 일을 하기 때문에 보통 십이사도 정원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도록 일곱 명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이들을 칠십인 제일 정원회라고 하는데, 이들은 교회에 있는 칠십인들과 모든 선교 사업을 관리하게 됩



니다. 이 정원회의 일곱회장의 사진을 26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교회에는 23,500명의 칠십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회원이 아닌 사람들을 찾아 여러분이 신앙개조에서 보신 대로 복음의 원리와 의식을 가르칩니다.

선교 사업은 칠십인이 갖는 주요한 책임이지만 모든 교회의 회원은 선교사이며 언제나 어디서나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소년 소녀 여러분께서도 복음에 관해서 좀 더 배워

알고 친구나 이웃에게 좋은 모범을 보임으로써 선교사의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곧 성장하면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국내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선교사로서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파하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교사업이 여러분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큰 축복을 안겨다 준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醇



#### 칠십인 제일 정원회

앞열왼쪽부터: 에스 딜워스 영, 밀튼  
알 헌터, 에이 데오돌  
터틀

뒷열왼쪽부터: 폴 에이치 던, 하트만  
렉터이세, 로랜 시 던, 렉  
스 디 피네거



엘 돈 린쇼튼과 돈 돌프 촬영.

# 점잇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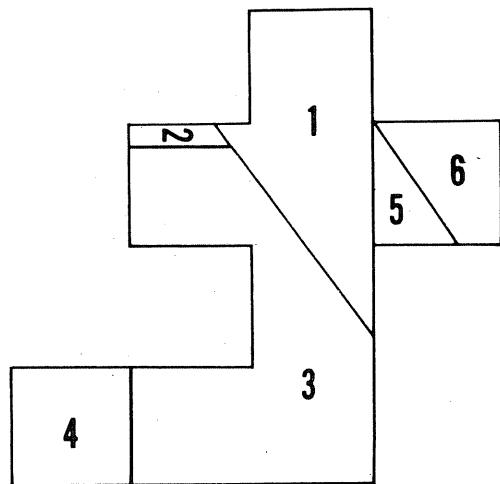
점을 잇고 이 화단에 무엇이 숨어 있나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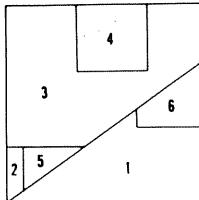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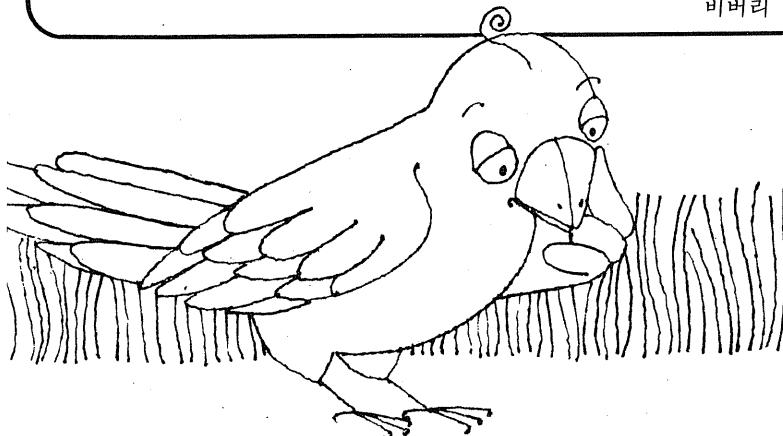
비버리 존스턴

# 심심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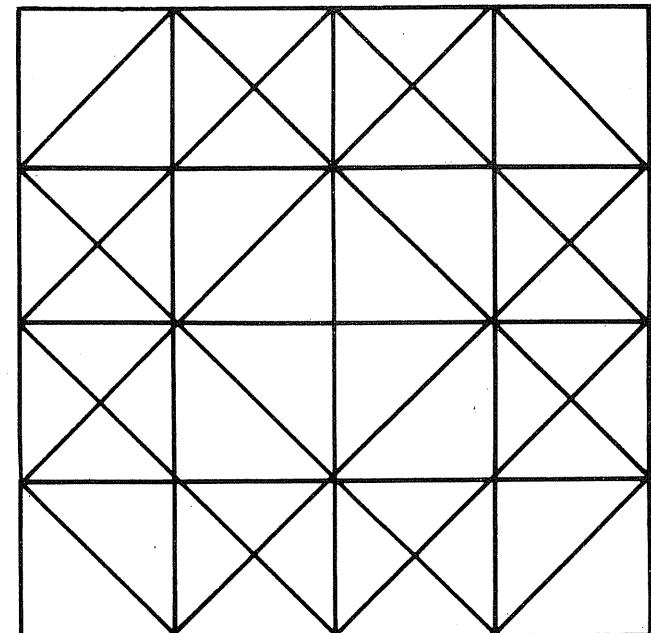
두꺼운 마분지에 아래의 그림을 그리고 이 여섯 조각을 오리세요. 그리고 다시 짜맞추어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에게 아주 복잡한 문제를 하나 드릴까요?  
이 그림에는 삼각형과 사각형이 모두 몇개나 있을까요?



4471  
제작: 문학동아 1607호



# 질의응답

이곳에 쓰여지는 대답은 참고로 쓰여지는 것이며 교회의 교리가 아님을 밝혀 둔다.

“회복된 교회의 초기 성도들이 계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계시를 받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1820년 첫 번째 시현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지시와 함께 복음의 기본 원리와 의식들을 계시를 통해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러한 계시는 최초로 예언자에게 주어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 교회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계시가 오늘날 다시 새롭게 주어질 필요는 없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이끌기 위해 더 계시를 내려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실 때에는 살아 계신 예언자를 통하여 계시를 내려 주십니다. 그 한 예로는 주님께서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께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주신 계시가 있습니다. 그랜트 대관장님의 제1보좌였던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님은 이 프로그램을 실천에 옮긴 사람의 한 분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계시가 그랜트 대관장님께 임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것에 관한 계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 관한 계시도 받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 받으신 그러한 계시를 통해서 그랜트 대관장님은 위대한 복지 계획에 착수하셨습니다.” (1951년 8월 3일 중부 유타 복지 지역 모임에서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이 행한 연설)

내가 총관리 역원으로 있는 동안 주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예언자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급속도로 증가되는 스테이크와 선교부의 회원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이를 관리하도록 주어진 협의 프로그램과 확대 프로그램이 바로 좋은 예입니다.

부름을 받아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모든 교회의 관리 역원은 교회의 초기 성도들이 받았던 것처럼 부름받은 직분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계시를 받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의 회원은 모두 그를 인도해 주는 계시를 받습니다. (교성 84:46-47 참조) “구하라, 그리하면 열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교성 4:7)는 말씀은 근거없는 약속이 아닙니다.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주신 주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영의 나타냄으로써 이야기된 내 경전의 일부가 실려 있는 옛 기록인 조각문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될 것을 믿으며 성실한 마음으로 신앙 가운데서 구하면 무엇에 관한 지식이든지 얻게 될은 네 하나님이요 구속주이신 주께서 살아 계신 것 같이 참으로 분명 하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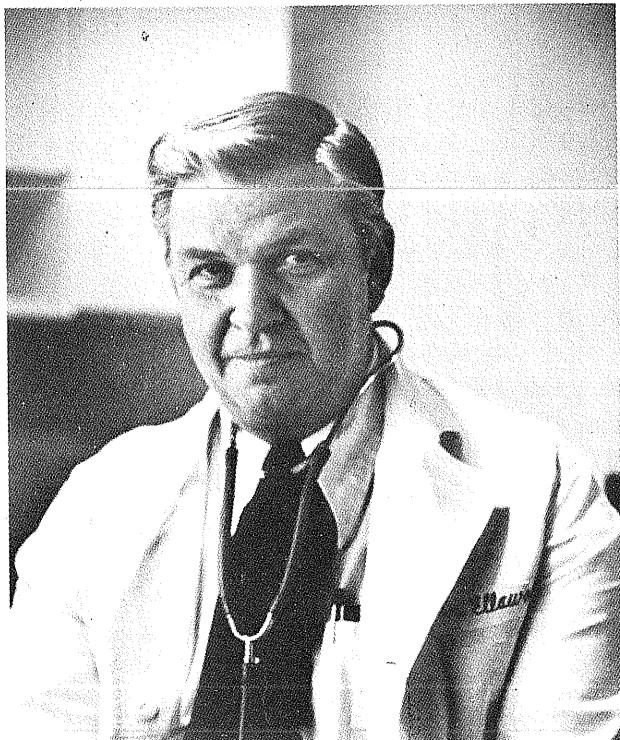
“참으로 그러 하도다. 보라, 나는 네게 와서 네 마음 가운데 거할 성령으로 네 정신과 마음에 말하리라.

“보라, 이것이 계시의 영이니, 보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녀를 인도하여 마른 땅을 밟으며 홍해를 건너게 한 그 영이니라”(교리와 성약 8:1-3)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한 이 계시의 원리는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의 교회가 다시는 결코 지상에서 사라지거나 다른 사람의 수중에 넘어가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매리온 지 룸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 “최면술을 이용하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역사적으로 보아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최면술을 이용하거나 실제로 경험해 보는 일을 반대해 왔습니다. 1902년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존 더블류 테일러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이(최면술) 하나님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대회 보고, 1902년 4월, 76페이지)

십이사도 정원회의 프랜시스 엠 라이맨 장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본 바에 의해 최면술을 이용하지 말도록 권고합니다. 나는 자신을 최면에 걸리게 하거나 나의 아이들이 이에 걸리도록 하는 일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우리가 받은 최대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용한다면 그 순간 그 마음이 육신을 지배하고 통제하게 되므로 우리는 완전히 타인에게 자유의지를 넘겨 주고 만 것이 됩니다. 최면술사가 원하는 기간 동안 최면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최면술사는 우리에게 선행을 하게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그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일단 깨이게 되면 기억을 한다 해도 아무런 이로움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최면술사는 우리의 뜻을 조작할 수 있으므로 어리석은 일, 악한 일, 충격적인 일까지도 하도록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면술은 이 세상에 사람이 있기 전에 사탄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기를 바랐던 계획과도 흡사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뜻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해서 그들을 모두 구하겠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구세주는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 구원을 받아 들이는 사람만을 구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계획을 거부하셨고, 인간이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게 하시는 참된 원리를 지지하셔서 그의 자녀 중 삼분의 일을 회생시켰습니다.”(“최면술을 써도 좋은가?” 임프로브먼트 이라, 6권 [1903년 4월], 420페이지)

1972년 8월호 신권 공보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었습니다. “집단 최면 시험이나 심령술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가 오락으로 최면술 시범을 보여 왔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지도자들은 교회 회원이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지 말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그러한 활동은 교회의 지도자에 의해서 개최되거나 권장되어서는 안됩니다.”

나는 최면술이 여러 가지 결과를 낳으며, 최면술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남에게 맡기게 되는 것을 분명히 보아서 알았습니다. 최면에 걸린 사람은 일정한 기간 동안 그의 자유의지를 잃게 됩니다. 아무도 최면 상태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얼마나 기이한 현상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최면술사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와는 달리 최면술에 걸린 사람은 도덕적으로 정상인 상태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도록 이끌립니다. 다른 사람을 완전히 조종할 수 있을 때 최면술사에게 오는 유혹이 얼마나 큰 것인지는 말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누구에게 맡겨 치료를 받을 것인가도 결정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신망을 얻고 있는 의사라 할지라도 동료 의사가 볼 때는 가장 훌륭한 의사라고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최선의 표준으로 주의깊게 자신의 몸을 돌볼 사람을 택해야 합니다. 만일 선택을 잘못했다면 선택을 잘못했을 때만큼 빠른 속도로 건강이 회복되거나 병이 낫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불멸의 영혼을 치료받기 위해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나 도덕적인 의지를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나 타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혹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짓 목적으로 최면술을 쓰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도덕적인 의지를 맡겨 버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요 기본입니다. 영원한 영혼을 맡아 다룰 수 있을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최면술을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으로 최면술은 교회 회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頤

호머 엘스워스 박사

멜기세덱 신권 상이회

본부 입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  
 **리는 이 자리에 있거나 멀리 떨**  
 **어져 있거나 모두 오늘 성회에**  
 **참석하고 있읍니다. 성회란 고대 이스라**  
 **엘 시대부터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큰 모**  
 **임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성회가 있으**  
 **나 일반적으로 신전 현납, 신임 대관장단**  
 **의 지지,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 때 있었던**  
 **십일조 계시와 같은 성격의 계시에 대**  
 **한 신권 역원의 지지 모임 등이 그 대표적**  
 **인 성회라 할 수 있읍니다. 예언자 요셉스**  
 **미스는 성회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실로 이곳에 머무를지어다. 그리하여  
 이 마지막 왕국에 첫 일군된 자의 성회를  
 소집하라” (교리와 성약 88:70)

요셉 스미스와 브리감 영은 완전히 조  
 직된 신권 역원과 회중으로부터 최초로  
 지지를 받았읍니다. 브리감 영은 1846년  
 3월 27일에 지지를 받았으며, 정원회에서  
 “이스라엘 모든 진영을 관장하는 회장으  
 로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읍니다.” (비 에이  
 치 토버츠, 교회 약사, 3권 52페이지) 후  
 에 그는 지지를 받았으며, 호산나의 외침  
 소리를 받았읍니다. 교회의 각 대관장은  
 1972년 10월 6일 지지된 해롤드 비 리 대  
 관장을 포함해서 모두 성회에서 교회 신권  
 역원의 지지를 받았읍니다.

요셉 스미스는 첫 성회를 이끌었는데  
 그는 연설을 마치자, 대관장단에서부터  
 각 정원회가 차례로 일어나 그를 예언자  
 으로 선결자로 인정하고 지지하는 뜻을 보  
 여 주도록 요청했읍니다. 모든 정원회가  
 차례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의 요청에  
 따랐읍니다. 그런 다음 그는 모든 회중에  
 게 지지하는 뜻으로 자리에서 일어설 것  
 을 부탁하였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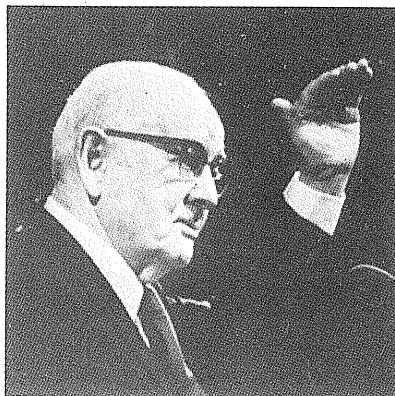
다시 그는 신권 정원회와 성도들에게  
 지지를 물었읍니다. 교회의 지도자와 교  
 회의 정원회가 여기서 다시 지지를 받았  
 읍니다.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모두가 만장일치로 지지해 주셨읍니다.  
 나는 성도들이 이들 각자(교회의 각 정원  
 회를 뜻함)를 지지하는 만큼 주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그들에게 축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을 예언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  
 니다. 주님의 종이 말씀과 간증을 전할  
 때 이를 받아 들이지 않는 도시나 집안은  
 황량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나?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것입니다”. 그런 다음 호산나의 외침 소  
 리가 울려 퍼졌읍니다. (교회 정사, 2권  
 416-18페이지 참조)

오늘날 여러분은 생동하는 교회의 모습  
 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사업과 만장일치로 모든 일이 전  
 행되는 과정과 회원이 그들을 이끄는 지  
 도자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셨읍니다. 이것  
 은 협법 제정 의회와도 같읍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이 참석하도록 초청되었읍니다.

오늘 여러분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사람  
 들은 마음 속 깊이 목적을 되새기며 주어  
 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지지해 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하  
 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온 마음을  
 다하여 지금까지 내려온 대로 주님의 권  
 고에 따라 올바르게 백성들을 권고하고  
 훈계하는 일에 모든 관심을 기울일 것입  
 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  
 에게 진보와 기쁨과 행복이 것들기를 바  
 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  
 이 하나님의 예언자와 지도자에 의해 선

포된 하나님의 훈계를 따를 때 가능하다  
 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기울일 때 우  
 리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천사들의 달  
 콤한 교향악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고대에 끌로새 성도들에게 전한  
 다음과 같은 바울의 훈계를 따르고 있읍  
니다. “…너희가…위에 것을 찾으라. 거  
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것을 생각하고 땅에 것을 생각지  
 말라” (골 3:1-2)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  
 하여 모든 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  
 고 시와 친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  
 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끌  
 로새서 3:16)

이와 같은 사랑의 멜로디를 마음 속에  
 간직하고 주님의 사업이 영원한 것임을  
 알아 힘차게 전진합시다.

감미로운 영원한 멜로디에서 우리는 무  
 엇을 듣고 있읍니까?

우리는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대화하시는  
 하나님의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하나님아니, 내가 세상을 만들  
 었고 또 인간이 육체로 있기 전에 사람도  
 만들었느니라” (모세서 6:51)

우리의 선조인 아담은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기본이 된 진리를 우리에게 주었  
 읍니다.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  
 록 변함이 없읍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시조의 죄를 대속하  
 였고 이로써 양천의 죄는 자녀의 머리로  
 돌아올 수 없도다. 자녀는 창세 전부터  
 온전함이니라는 말이 백성 가운데 널리  
 퍼졌느니라” (모세 6:54)

아담은 침례와 성신을 받았읍니다.

아담에게서 우리는 구세주의 오실 것을  
 배웠읍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 무덤  
 으로부터 구원된다는 것도 배워 알았읍니  
 다. “…이 생에서 기쁨을 누리며 또다시  
 육체로서 하나님을 보리라” (모세 5:10)

인간은 자손을 낳게 마련이며, 따라서  
 지상의 가족은 그들의 손에 영원을 지니고  
 있는 셈입니다. 이 예언자와 그의 아  
 내는 “하나님 부르기를 그치지 아니하였”  
 읍니다. (모세 5:16)

“이같이 모든 일은 거룩한 의식으로써  
 아담에게 수여되었고 복음은 전파되었으

며, 하나님의 명령은 끝날까지 세상에 있어야 하리라 공포되었더라..."(모세 5:59)

그러므로 그것은 영원합니다.

아담은 신권을 받았으며, 기억의 책에 그의 계보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굳건한 기초를 마련해 주신 이 예언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가르쳐 주신 애녹파 같

한 신비를 알고 있었으며, 당시 천문학의 중심지였던 이집트의 뛰어난 과학자들과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 이전 전세의 역사도 알고 있었으며, 이 지상이 인간으로 가득차게 된다는 것도 이 예언자이며 축복사인 아브라함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를



은 예언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보라, 내 영이 네게 있어 네가 하는 말은 모두 정당하게 해주리라. 산들이 네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강물이 흐르는 방향을 바꾸리라. 네가 내 안에 거할진대 나는 네 안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나와 함께 행하라"(모세서 6:34)

이 거룩한 예언자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으며 태초의 창세 과정과 앞으로 올 그리스도와 모든 인간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경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녹파 그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는 시온 한 가운데 거하였더라. 때가 지남에 시온이 없어졌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품으로 받아 들이셨음이라..."(모세서 7:69)

우리는 들을 때 과연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한 민족의 아버지인 의로운 아브라함의 음성을 듣습니다. 의롭고 거룩한 예언자 아브라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선조였습니다. 그는 주여호와와 가까이 하며 대화를 나눈 분입니다.

그는 천문학자로, 하늘과 우주의 무수

들었을 때 그는 초인적인 신앙으로 이삭이 살아서 많은 후손을 보게 된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삭이 목숨을 잃더라도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히 11:19) 혼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위대한 예언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들을 때 과연 무엇을 들을까요?

우리는 예언자 모세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애원하는 모세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주님으로부터 받아 들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니라..."(모세 3:5-6)

우리는 다시 노래합니다. 주님 앞에서 불을 밝힌 위대한 예언자 모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들을 때 과연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호와께서 교회의 대관장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마 16:13)는 질문을 받은 위대한 예언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확신에 넘친 말로 대답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우리는 그가 변형의 산에서 있었던 경험을 회상하면서 한 불글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볼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음을 들을 것이다"(베드로후서 1:16-18)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베도가 있었으며 수세기 동안 이 지구는 영적으로 암흑 세계가 도래했습니다. 때가 차매 새로운 각성이 일기 시작했고 초기처럼 시현과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듣고 있는데 무엇을 듣고 있을까요?

우리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어느 교회에 속해야 하나요?"라는 너무도 중요한 질문을 깊숙에서 무릎을 끊고 하나님께 여쭈는 소년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다른 위대한 예언자가 새로운 경륜의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놀랄 만한 시현을 통해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요셉 스미스 2:17)고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며...처음이요 마지막이리"(교성 11:28, 110:4)

젊은 예언자는 초기에 잊은 모든 것과 함께 영원한 복음을 회복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속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시현과 계시가 이에 동반했으며, 이 젊은 예언자를 통해 지상에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신권 사도의 직분, 권능과 권세, 교회의 조직 등이 회복되었고, 이리하여 지상에는 다

시 계시와 영원한 진리가 있어 이를 받아들이려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회복되어 인간은 복음의 충만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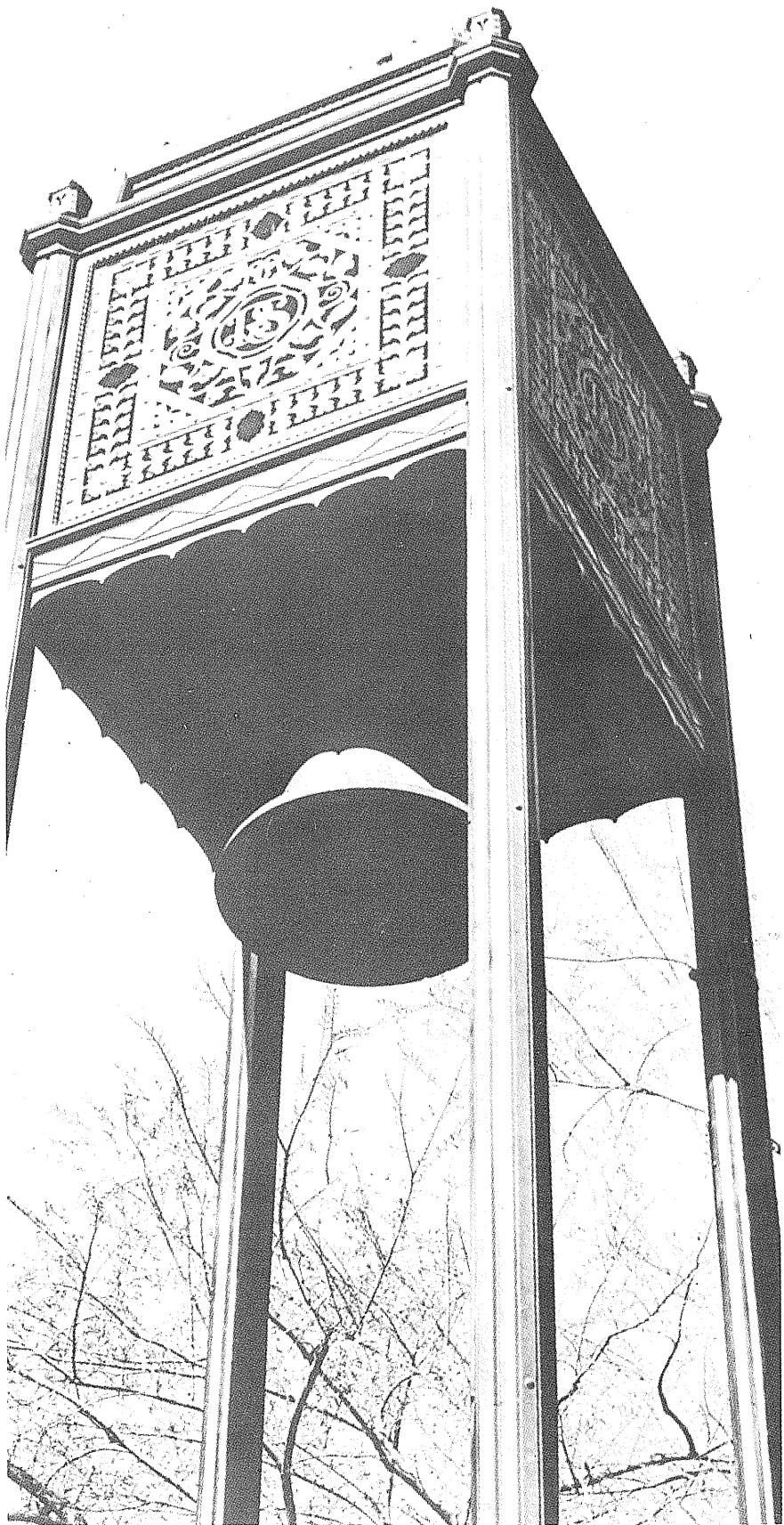
다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음성을 듣습니다. “형제들아, 이 위대한 대업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 하려느냐? 전진하여 물려서지 말며, 용기를 내라. 형제들이 나아가고 또 나아가서 승리를 쟁취하자. 기뻐하라. 크게 즐거워하라. 세상 사람들아, 노래불러 울려 퍼지게 하라. 죽은 자여, 임마누엘 임금께 영원한 찬양의 찬송가를 부를지어다. 저는 창세 이전에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를 그 옥에서 속량해 줄 수 있게 정하셨느니라.

“산들아 기뻐 소리지르라. 너희 모든 골짜기여 크게 의치라. 너희 모든 바다와 마른 땅이여, 너희 영원하신 임금이 행하신 기이한 업적을 말하라. 또 너희 강과 시내와 개천이여, 즐거움으로 흘러 내리라. 숲이여, 들의 모든 나무여, 주를 찬양하라. 너희 굳은 바위여, 기쁨의 눈물을 흘려라. 해와 달과 새벽 별이여, 함께 노래하라.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아 기쁨으로 의치라. 영원한 피조물아,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선포하라. 내가 거듭 이르노니, 하늘에서 우리에게 들리는 음성은 얼마나 영화로운고. 그 음성은 우리의 귀에 영광과 구원과 존귀와 불사불멸과 영생과 왕국과 권능을 고하도다.”(교성 128 : 22-23)

우리는 이러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언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때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회복된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봉사할 것이며 여러분을 사랑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여러분에 대해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앞을 내다 보며 쟁기를 손에 잡고, 위를 보며 눈은 오직 빛을 향하여 두려움과 멀리는 마음과 사랑을 지니고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사업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임을 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러한 성스러운 간증을 전해 드립니다. 아멘. ■



# 선교사업 : 중요한 책임

교회의 첫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음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겸손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일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킴볼 대관장님 나는 태버내를 합창단의 아름다운 자매님들과 더불어 노래가 말해주듯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대관장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십이사도로 부름받은 엘 톰 페리 장로님께 말씀드립니다. 형제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충만하여 가장 안락하고 행복한 단체 중의 하나에 가입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똑같은 마음으로

십이사도 보조가 되신 제이 토마스 홀이언스 장로와 넬 에이 맥스웰 장로님을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지도자인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수많은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약해지는 마음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근 55년간을 사귀어 온 사이로 나는 전세에서부터 우리가 그러한 관계를 맺어 왔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세상을 떠나지 않아야 할 때에 세상을 떠나지는 않는다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리 대관장님이 지상에서 맡은 봉사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는 장막의 양쪽에서 진행되는 주님의 위대한 계획에 따라 보다 중요한 사업을 맡기 위해 부름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는 깊은 영적인 통찰력과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그가 지닌 가장 원대한 목적은 인간의 영혼을 구하는 데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큼을 기억하라”(교리와 성약 18  
: 10)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승영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갖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리 대관장님은 다른 누구보다도 이 위대한 사업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나는 그가 시온의 청소년과 도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전세계에서 위대한 진리의 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주신 영감에 대해서도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과 나란히 앉아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십이사도 정원회에 들어 왔습니다. 나는 이분이 위대한 분임을 압니다.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나는 그를 존경합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분이며, 하나님의 겸손하고 영감받은 예언자입니다. 내 온갖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그를 지지합니다. 그분과 함께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체를 개의치 않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나는 킴볼 대관장과 그의 두 보좌가 리 대관장님의 지도 아래 주역을 맡아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감사함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을 길러 주고 부모나 가족이나 각 개인이 당면하는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그것보다 더 훌륭한 프로그램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킴볼 대관장님의 영감에 찬 지도로 우리는 계속 그 프로그램을 강화시키고 발전시켜 갈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절실히 요구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인 몰몬이즘의 메시지는 이미 140여년 동안 전세계에 전파되어 왔습니다.

1830년에 사무엘 해리슨 스미스가 회복된 교회의 첫 공식 선교사로 여행을 떠나 뉴욕주의 시골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그의 형인 예언자 요셉으

로부터 성임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선교사는 그가 등에 짊어지고 간 새롭고도 이상한 책을 한 권도 팔지 못한 채 백리길이나 걸었습니다. 밤이 되어 피로하고 배가 고파 잠자리를 구하던 그는 자신의 임무를 여관집 주인에게 간단히 설명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말을 듣고는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 거짓 말장이 당장 이집에서 썩 물러나지 못할까! 그 책을 가지고는 단 일분도 발을 끌이지 못할 줄 알아!” 그는 낙심하여 무거운 마음을 안고 여행을 계속하였으며 그 첫 날밤을 사파 나무 아래에서 새웠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의 선교 사업은 회복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이처럼 어려운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의 첫 선교사가 혼란한 세상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144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중요한 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위대한 사업은 출기차게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특유한 백성의 역사에 극적인 한 장을 장식하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보다 더 위대한 용기와 희생과 의무감을 보여 준 예는 없다 하겠습니다. 남자, 여자,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물질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영웅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들은 기본적인 의식주의 대책도 없이 진흙과 눈을 밟고 높이 빠지며 복음을 전하려 다녔습니다. 수많은 가장과 아들들이 가정과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자발적으로 온갖 고통과 박해를 무릅쓰고 세계 각처로 떠났습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몹시 궁핍한 상태에 남게 되었으나 모두들 집을 떠난 선교사를 돋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집에 남은 가족들은 기쁨과 만족감을 맛볼 수 있었으며 그들이 받은 특별한 축복에 대

해 감사하였고, 선교사들도 그 기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출회하였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봉사하고 있는 남녀 선교사 20,000명을 포함해서 1830년 이래 지금까지 복음 선교사로 봉사한 선교사의 수는 대략 140,000명에서 150,000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980,000,000일 내지 1,050,000,000일을 바친 셈이며, 이들이 그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벌 수 있는 수입과 생활비 지출을 계산하면 4,200,000,000불내지 4,500,000,000불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들이 이동할 때 드는 교통비나 행정비, 지역 선교 사업에 드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단체도 의를 전하기 위해서 자의로 그만한 희생을 바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고대와 현대에 두루 적용되는 십일조의 법에 따라 주님의 사업을 위해 수입의 십분지 일을 바치는 부유하지 못한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일을 스스로 행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시간, 재산, 안락, 가정의 즐거움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상의 인간에게 다시 나타나시어 옛날에 성도들이 지닐 수 있었던 모든 은사와 축복을 주시고 그의 교회를 재조직하셨고 거룩한 권능과 함께 성스러운 신권을 회복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불붙는 듯한 확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위대한 말일의 사업의 거룩한 뜻과 전능하신 분의 지시에 대한 믿음, 성약의 자녀로서 갖는 책임,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인간을 발전시키고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에서 우리나라온 것입니다.

◆ 우리의 선조 아담의 시대부터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의 후계자가 있

는 오늘날까지 신권이 지상에 있을 때에는 복음의 영원한 원리인 구원의 계획을 전파하는 것이 성도의 큰 책임이 되어 왔습니다. 선조 아담도 이것을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모세 5:12) 노아가 오랜 기간 동안을 선교 사업으로 보냈고 고대의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파했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8:11-20) 모두가 그들이 살고 있던 시대에 인간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을 받았으며, 임박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한다고 의쳤습니다. 구세주는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삽아…” (마 28:19)라고 말씀께서 그들의 사명을 밝혀 주셨습니다.

부활한 모로나이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났을 때에도 예언자의 이름이 세상에 좋게 혹은 나쁘게 알려지며, 회복된 복음을 담은 경전이 “말세에 내가 택한 제자의 입으로” (교성 1:4) 전 세상에 전해지리라는 사실이 강조되었습니다.

교회가 조직되기 일년 전에 주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하여 “바야흐로 기이한 일이 인간의 자녀에게 나타나려 하는도다” “밭은 이미 무르익어 추수할 때로다” (교성 4:1, 4)라고 밝혀 주셨습니다. 초기의 성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려므로 너희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흄없이 설 수 있도록 너희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교성 4:2)

초기의 선교사들에게는 큰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크며”, “만일 너희가 온 생애 동안 이 백성에게 회개를 의쳐 단 한 사람이라도 네게로 이끌어 오면 저와 더불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맛볼 너희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 (교성 18:10, 15)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

1830년 4월 6일 교회가 정식으로 조직되기 이전에도 이외에 여러 가지 영광스러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교회가 조직된 후 많은 사람이 침례를 받았으며, 합당한 형제들은 신권의 직분에 성임되었고, 회개를 외치고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성별되었습니다. 그 후에 받은 많은 계시에서 더 큰 약속이 주어졌으며,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회복된 교회에 주어진 성스러운 책임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해 가을에 주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팔 소리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구부러지고 비뚤린 세대를 향하여 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았나니,

“보라, 밭은 이미 무르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열 한 시라. 내가 포도원에 일꾼을 불러 들여야 할 마지막 시각이니라”(교리와 성약 33:2-3)

주님께서는 이 겸손한 종들에게 그들이 “주의 재림을 위하여 주의 길을 준비”(교성 34:6)하고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은 성실하게 생활하는 한 성신의 권세에 감동된 밀을 하게 되며, 그들의 말이 주의 뜻이 되

며, 백성들에게 경전이 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을 시험하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지며… 마음에 피곤을 느끼지 않으며 어두워지지도 않고…머리털 한 오라기도 아무도 몰래 땅에 떨어지지 않게”(교성 84:79-80)되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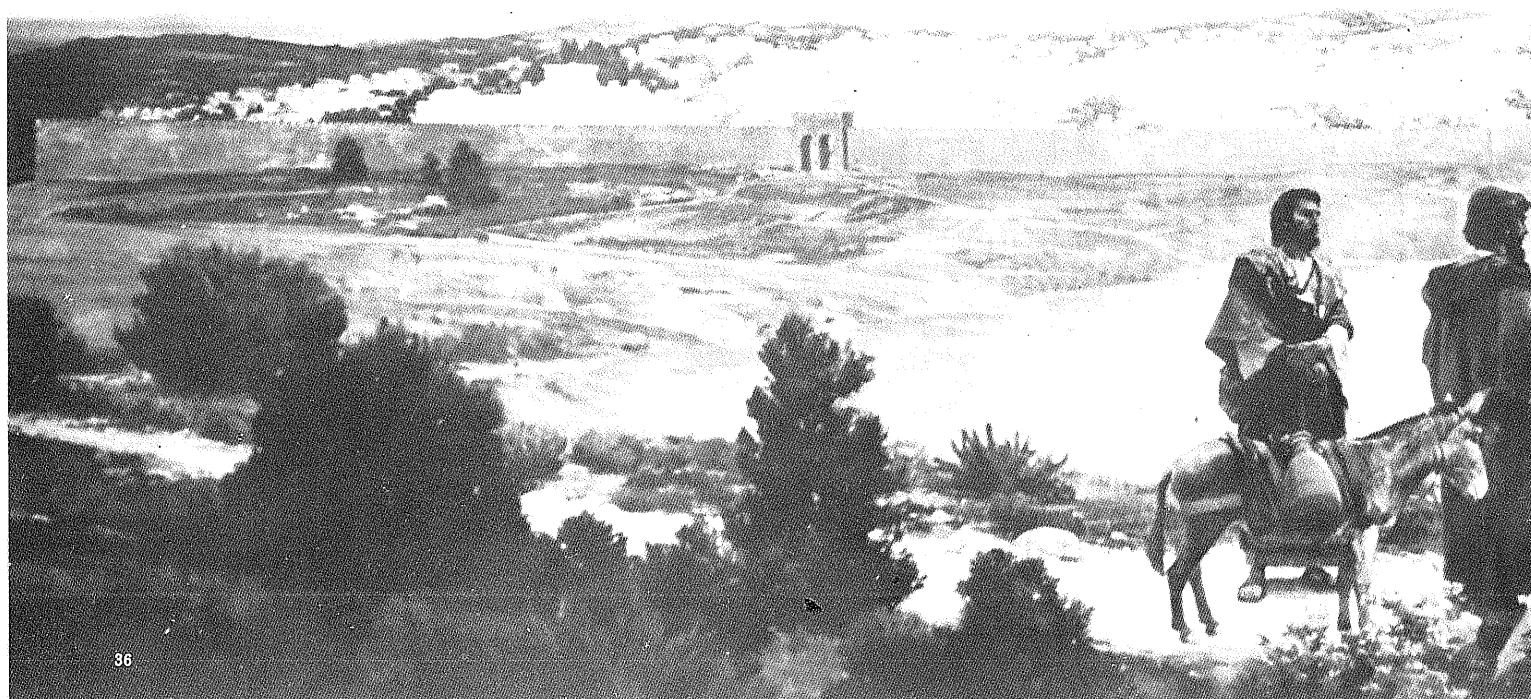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과 새로운 복음의 경륜시대가 막을 열었다는 개인적인 간증과 함께 적은 수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무런 금전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힘차게,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전진해 갈 수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외에도 지금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증거로 복음을 인간에게 전해야 할 마지막 때이며 세상의 종 말 곧 악의 종말이 가까운 때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처럼 그들도 다가올 심판에 대해 세상 사람에게 경고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알듯이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황폐하게 하는 벌이 땅의 주민에게 임할 것이요,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때때로 벌을 쏟아 부으리

니, 드디어 땅은 공허하게 되며 그 주민은 내가 올 때의 밝음으로 인하여 소멸되며 완전히 멸망 당할 것임이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하여 백성에게 고하였던 것 같이 이 일을 네게 이르노니, 지금까지 나의 말이 증명되어 온 것 같이 이번에도 증명되리라”(교리와 성약 5:19-20)

1831년 년말에 가서는 주님께서 그의 교회에 내려 주신 계시를 책으로 출판하는 일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때까지 많은 계시를 받았으며, 교회는 박해와 추방의 시달림 속에서도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장로들의 대회에서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을 통하여 그의 교회의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고 “만민에게 미처 한 사람도 피할 자가 없을…”(교성 1:4) 위대한 계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기서 전해진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 만큼 폭넓으며 강력한 힘과 명확성을 지닌 메시지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교리와 성약의 제1편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들인다는 점을 아는 사람이라면 왜 우리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견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말세에 내가 택한 제자의 입으로 경고의 음성이 온 백성에게 미



치리라”(교성 1:4)는 주님의 말씀으로도 알 수 있듯이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중요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읍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다음과 같은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들이 나아갈 것이며 막을 자는 한 사람도 없으리라. 이는 나 주가 저들에게 명하였음이니라”(교성 1:5) 계시는 또한 이 모든 것을 출판하여 세상 주민들이 보도록 하였고 설명하고 있읍니다. (교성 1:6 참조) 주님께서는 그의 음성이 지상의 끝까지 전해질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땅의 국민에게 임할 재앙을 알고 있는 나 주는 나의 종요셉 스미스 이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며 그에게 계명을 주었느니라”(교성 1:17)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경륜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예언자를 통하여 도피의 방법도 알려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나 주는 이 일을 기꺼이 모든 인간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이는 내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교성 1:34-35)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 훈계로서 그는 그의 모든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 밝혀 준 “계명을 상고” 할 것을 촉구하였는데, “이는 참되고 신실하며 그 가운데 있는 예언과 약속은 모두 성취될 것”(교성

1:37)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천지가 없어져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교성 1:38)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용한 위대한 계시를 받은 지 이틀째 되는 날 주님께서는 그의 교회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국민에게 나의 교회의 장로들을 보내며 바다의 여러 섬에 보내라. 외국으로 보내라. 모든 국민에게 찾아가라...”(교성 133:8)

그러므로 이 위대한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가지고 말일성도로서 교회에 주어진 이처럼 중요한 책임을 겸손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들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구원과 승영의 위대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합니다. 기꺼이 우리의 시간과 재력을 바쳐 주님께서 지상에 왕국을 세우는 일을 하는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첫째가는 의무요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각 시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 사업을 특징지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표식이기도 합니다. 성실한 말일성도가 있는 곳이면 그곳에서 지상의 대업을 위해 헌신하는 회생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대전이 한창일 때에 교회의 대관장단은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 교회가 어떠한 위치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 사업에 대한 명령에 지장을 주어서는 결코 안됩니다.”(대회 보고, 1942년, 4월, 91페이지)

한 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왕국을 세우고 발전시키며 의를 전파하는 주님의 사업을 위해 모든 것을 다바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퀸볼 대관장님께서도 지난 목요일 영감에 찬 말씀으로 이 책임의 중요성을 지역 대표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즐거이 이 목표를 받아 들였으며 주님의 계속적인 지지의 힘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 주님의 지시로 운영되는 성스러운 사업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魏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 속의 느낌을 감출 길 없는 대회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직분에 부름받고 이제 교회 회원 여러분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 이 대회에서는 개인적인 말씀을 몇 가지 드려보고 싶습니다.

나는 교회의 총관리 역원에 대해 큰 사랑과 존경심을 갖도록 가정에서 교육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내가 초등협회 졸업 필수 요건으로 십이사도의 이름을 외우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암기할 내용은 물론, 각 사도에 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신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라도 로저 크로슨으로부터 찰스 에이 칼리스에 이르기까지 위대했던 사도들의 이름을 외워 보라고 하신다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빨리 외울 수 있으며 그들의 생애에 있었던 일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게 맡겨진 막중한 책임을 깊이 생각하다가 문득 만일 어느 가장이 가정의 밤에 자녀들에게 십이사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생각이 이쯤 미치자 나는 불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과연 그 가장은 나에 대해 무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꼼꼼 생각해 보고 기억을 더듬어 보다가 나는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할 가치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어린이들에게도 들려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나에 관한 소개를 한 가지 찾아냈읍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한 다음과 같은 훈계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전강하-

# 믿음의 방패를 만들라

교회의 모든 부모는 자녀가 주님과 가까이 있도록 가르

쳐야 한다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엘 톰 페리, 서울대회,  
1974년 10월 2일,  
믿음의 방패를 만들라,  
38. 39 22

여지고

“마귀가 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뚠고 의의 흥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엡 6:10-11, 14-16)

우리는 매일 아침 집에서 옷을 입게 되는데, 부모는 악천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자나 비옷이나 장화를 신길 뿐만 아니라 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도 조심스럽게 입히고 계십니다. 무릎을 끊고 가족 기도를 드릴 때, 신권을 소유하신 아버지께서 악의 무서운 위협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해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릴 때, 우리는 다시 한 겹의 믿음의 방패를 더 얹게 됩니다. 우리의 방패가 강할 때 자녀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향해 갈 때 이 지상에 오는 순간부터 사



랑 많은 부모가 우리를 위하여 굳건한 믿음의 방패를 만들었다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한 방패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잠깐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가 군에 있을 때 휴가를 받던 날 해병 동료들은 나에게 멋진 제의를 해왔읍니다. 나는 그들과 어울려서 한참 시간을 보낸 후에야 그들과 함께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그들이 나를 초청한 이유를 알게 되었읍니다. 그것은 그들이 나의 표준을 알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시도

한 장난이었읍니다. 그들은 기지로 돌아올 때에는 내가 술취하지 않고 냉정한 정신으로 그들을 안전히 데리고 기차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었읍니다.

우리는 로스엔젤레스에서 멘스홀로 향하는 전차를 탔었읍니다. 그들이 벌써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으므로, 나는 이들을 떠나려고 결심을 하였읍니다. 이때 나에게는 보호의 방패가 씌워졌으며, 나의 부모님이 나를 위해 하시던 기도가 생각났읍니다. 전차가 정거하였고, 승객이 올라탔읍니다. 새로 탄 승객이 나와 친구들 사이에 서서 우리를 갈라 놓았고, 나를 뒷자리로 밀었읍니다. 여기서 나는 점잖은 청소년 그룹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들 중에서 한 청년이 나를 보자마자 “해병 아저씨 우린 물돈이예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아세요?”하며 말을 걸어왔읍니다.

나는 “잘 알지”라고 대답하고는 그들과 함께 전차에서 내려 와서 모임에 참석했읍니다.

여러분께서는 믿음의 방패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무서운 악의 공격에서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내가 합당한 때에 천사와 같은 아내를 만나 주님의 신전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해 인봉받을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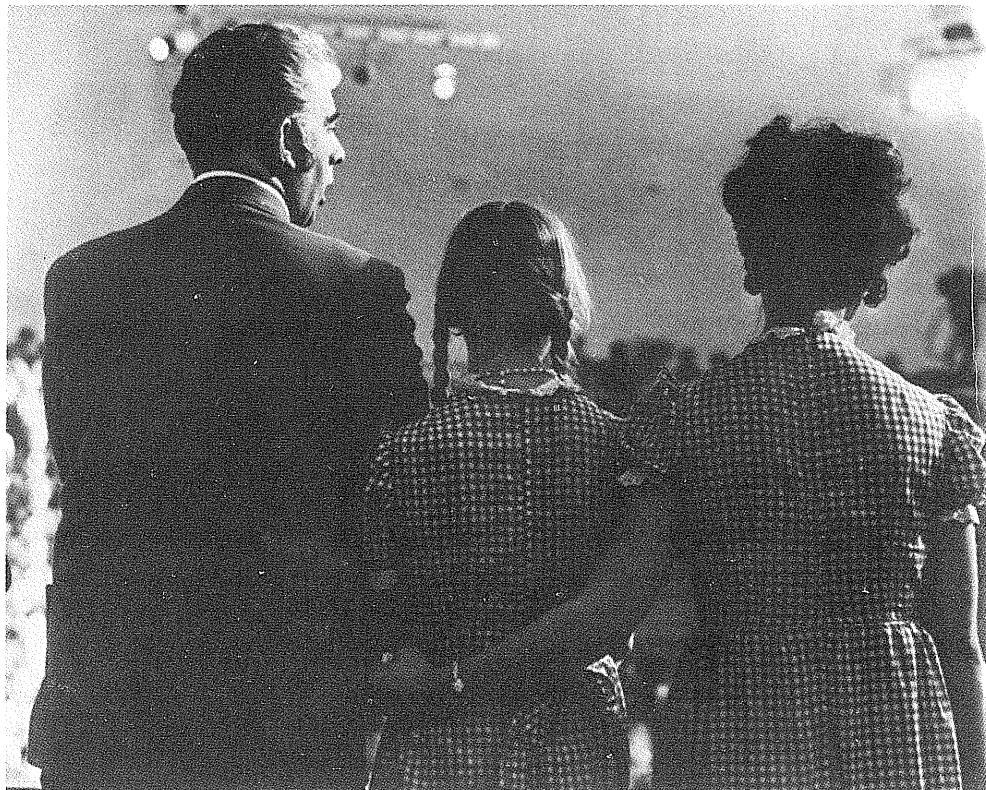
나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방패를 갖추도록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았읍니다. 나는 그것이 정말로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하루의 활동을 시작하기 위하여 가정을 떠날 때, 가정을 축복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족에게 축복

해 주는 가장의 기도를 듣고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하루가 되겠습니까?

컴볼 대관장님께서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부름을 나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 들입니다. 나는 이것이 거룩한 부름이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요셉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깊은 유대를 맺고 일했던 행스 장로와 파우스트 장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두 분은 내가 이 큰 부름을 받아 해야 할 일들을 알도록 나를 훈련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창 41:38)이라고 한 이집트의 바로와 그 요셉을 구별해주는 속성을 대관장께서 지니셨음을 압니다.

나는 이 정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여 대관장님이 자신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벤슨 회장님께 사랑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을 위해 전심을 다해 봉사하고 싶읍니다. 나를 마음껏

오늘 나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스펜서 더블류 컴볼 장로는 참으로 주님의 예언자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와서 모두 함께 일합시다.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를 짓는 일을 도와 여러분과 악인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다는 확신을 여러분이 갖게 되길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아멘. 頤

## 신앙의 방패를 만듭

**성경** 나는 훌륭하신 부모님에  
께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은 모두 세상을 떠나셨지만 천  
사와 같은 나의 모친과 덕망이 높  
으셨던 부친께서 나의 이 부름을  
아시고 매우 기뻐하시리라고 확  
신합니다.

나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지난  
몇개월 동안은 앤지 모르게도 경  
전을 읽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오늘 이 대회에서 나  
에게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니,  
롭니 부대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성  
령이 내게 임하여 이와 같은 직분  
을 맡도록 영적인 준비를 시키신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구약성서와 값진 진주를 통해  
서 나는 구세주의 재림에 대한 예  
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브라  
함과 그의 후손이 받는 축복과 책  
임과 목표가 보다 분명히 나의 가  
슴에 심어졌습니다.

신약성서를 통해서 나는 베들  
레헴 구유의 자리를 찾았으며, 마  
음의 창을 통해 갈릴리 바다의 잔  
물결과 과거의 성스러운 사건을  
보았으며, 텅빈 무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여 절을 하였  
습니다. 일어났던 사건 하나 하  
나가 모두 나의 마음을 높이 고  
양시켜 주었습니다.

물론경을 통해 나는 약속의 땅  
에 온 리하이와 다른 사람의 생애  
에서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고  
통을 알게 되었으며, 자녀와 적까  
지도 먹이고 완전케 하시려는 하  
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을 한

# 봉사를 위한 다짐

## 신임 총관리 역원의 부름에 대한 대답

제이 토마스 화이언스 장로  
십이사도 보조



눈에 담아 보았습니다.

주님의 왕국이 설립되던 말일  
에 주어진 현대의 경전을 읽으면  
서 다음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되  
새길 수 있었습니다. "...세 사람  
의 관리 대제사가 선출되어...교  
회의 대관장단인 정원회를 구성  
하느니라"(교성 107:22) 또한 십  
이사도는 "...교회 대관장단의 지  
시 아래 ...교회를 설립하여 모든  
국민 가운데서 교회의 제반 사무  
를 정리할 자라..."(교성 107:3  
3). "...저들이 성령으로 감동되  
어 말하는 것은 다 경전의 말씀이  
되며..."(교성 68:4)

이러한 말씀들이 마음 속 깊이

파고 들므로 나는 이처럼 선택된  
형제들 앞에 두려움을 지닌 채 서  
게 됩니다. 특별히 교내 연락 관계  
의 일을 맡은 저에게 고문이 되어  
주신 네 분의 사도님께 감사드립  
니다.

현신적으로 봉사하는 여러분들  
의 손을 거쳐 오늘 말씀하신 이  
대회의 설교가 하나의 경전이 되  
어 성도의 벚이라는 표지의 책에  
담겨 각 가정에 배부됩니다. 우리  
는 이 현대의 경전을 통해 주님  
의 뜻과 마음과 말씀을 알 수 있  
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교내 연락 관  
계 종사자들은 수십개국어로 대  
회의 말씀을 동시에 통역하고 있  
습니다.

나의 상세한 설명이 불필요한  
말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또한  
또 다른 훌륭한 동료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나는 9월에 시  
작되는 새로운 교과 과정에 필요  
한 자료의 93퍼센트가 이미 완성  
되었다는 보고를 즐거운 마음으  
로 드립니다. 나머지 자료는 다

외쳤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요 19:28, 30)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권세를 오용했기 때문에 혹은 사랑하는 자가 배우지 않기 때문에 실망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두 유혹의 길도 걷게 될 것입니다. “악마가 인간의 자녀를 유혹함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악마의 유혹이 없으면 자신의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없나니…”(교성 29:39)

마찬가지로 우리는 고난의 길도 걸을 것입니다. 쉽게 하늘 나라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구세주께서도 극심한 고난과 시련을 겪으신 후에 하늘 나라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종으로 구세주 이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있기 전에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통한 슬픔을 안겨다 주는 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놓아 주는 길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히 5:8)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준 다음과 같은 말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기름보다 나으니”(삼상 15:22). 불순종의 결과는 구속과 죽음이며, 순종의 보상은 자유와 영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봉사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성역을 베푸시던 예수님의 생애는 선을 비춰 주는 탐조등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절름발이의 다리에 힘을 주었으며, 장님에게 광명을 주었으며, 귀머거리리를 듣게 하였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일으켜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비유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네 이웃을 …사랑하라”(눅 10:27)고 하셨습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친절한 태도로 대하여 사랑에 가득 찬 이해심을 몸소 가르쳐 보이셨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자신을 발전시키고 완전에 이르도록 노력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그의 길을 따르도록 우리의 여정을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눅 10:37)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그는 기도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는 세 가지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의 큰 교훈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한 기도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눅 11:2)

둘째는 갯세마네에서의 기도입니다. “…내 원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 22:42)

세째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

우리는 기도의 길을 걸을 때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며 그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걸으신 이러한 길을 걸겠다는 소망과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예언자와 선견자와 계시자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길을 걸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걸으신 길이므로 우리는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24년전 이곳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젊은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으면서 예언자이신 대관장님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아침 전화가 울려 수화기를 들자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스페서 더블류 킴볼 장로입니다. 특별히 부탁이 있어서 걸었어요. 감독님의 와드에서 5번지 옆 큰 건물 뒤에 가려 보이지 않는 작은 집에 살고 있는 회원이 있어요. 그 집에 살고 있는 분은 나바호 인디안인 마가렛트 버드 자매입니다. 감독님과 상호부조회 회장단이 그녀를 찾아 보시고 우정의 손길을 뻗쳐 주시겠어요?



그녀는 자신이 아무데도 쓸모없는 잊혀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렛트 버드 자매는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절망이 사라졌습니다. 고난 속의 미망인이 교회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이 간단한 인사 드라마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한결음 향상된 모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동심에 젖은 발길의 뜻을  
알았습니다.

감람산에서의  
성스러웠던 장면들을  
예수께서는 이미 전에 아셨읍  
니다.  
옛날처럼 변함없이 흐르는  
힘찬 요단강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무릎꿇고 외로이 기  
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도 무릎을 꿇었읍니다.  
마음 속의 두려움이 사라졌읍니  
다.

나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주님 곁에 다가 섰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을 떠  
나신  
칼보리 산에 올랐읍니다.

나는 오늘 예수께서 거니셨던  
그 길을 걸었읍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걸었읍니다.

—다니엘 에스 투히그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느끼기  
위해서 구태여 성지까지 가지 않  
아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거  
니셨던 유대의 언덕이나 갈릴리  
해변을 걸을 필요도 없읍니다.  
그의 말씀을 배우고, 그의 영을  
마음 속에 지니며, 그의 가르침을  
우리의 생활에 실천할 때 우리는  
그가 걸으셨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도 그가 걸으셨던 것  
과 같이 미래에 대한 확신과 아  
버지에 대한 불변의 믿음과 타인  
을 위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견  
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  
다.

예수께서는 낙담의 길을 걸으  
셨읍니다. 그는 거룩한 성을 보시

며 이렇게 슬퍼하셨읍니다. “예  
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  
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  
다”(눅 13:24)

예수께서는 유혹의 길을 걸으셨  
읍니다. 막강한 힘과 유혹이 넘  
치는 능변을 구사하는 악마는 주  
야 사십일을 금식한 예수를 유혹  
하였습니다. 사탄은 이와 같이 유  
혹하였습니다. “…만일 네가 하  
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  
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  
요…” 다시 사탄은 이렇게 말했읍  
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  
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  
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  
들을 명하시리니…” 다시 예수께서  
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  
하지 말라” 하셨읍니다. 사탄이 다  
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고  
하자 구세주께서는 “사탄아 물려  
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  
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고 꾸짖으셨읍니다. (마 4:3-10)

예수께서는 고난의 길을 걸으  
셨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받  
으신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  
이어든 이 잔을 내께서 읊기옵소  
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  
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  
다…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눅  
22:42, 44)

어느 누구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받으신 고통을 잊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는 다만 이렇게



사실 진정한 목자는 아흔 아홉의 양을 두고 잃은 하나님의 값진 영혼을 찾아 간 사도였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예수께서 걸으신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걸으신 길을 걸을 때 우리 모두 그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구세주께서 내민 손을 꼭 잡읍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옛날 호숫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이름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오실지 모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때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요 21:22)고 말하십니다. 그분은 오늘날 성취하셔서 할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분은 명령을 하시며, 따르는 사람에게 혈명한 자전 어리석은 자전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 보여 주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나 목수의 아들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가장 위대한 교사 이상의 품격을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심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상을 새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짓거나 군대를 이끌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왕관을 쓰셨거나 홀을 드셨거나 왕의 옷을 입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끝없는 용서와 다 못할 인내, 한없는 용기를 지니신 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습관, 의견, 야심까지도 변화시켰습니다. 인간의 기질과 성격과 인품까지도 변화시켰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마음까지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이나 나에게 선임 사도

인 베드로로 더 잘 알려진 어부였던 시몬을 생각해 봅시다. 성격이 성급하고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는 예수께서 대제사장 앞에 끌려 가던 밤을 생각하며 비통에 차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세주로부터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꾸짖음을 받은 제사들, 위선자로 낙인찍힌 장로들, 무지한 자라고 꾸짖은 서기들이 모두 그곳에 있었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위험스런 적이었던 사두개인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무리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친”(막 14:65) 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으며,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했던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찌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 끝 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막 14:54) 베드로가 구세주를 세 번 부인하여 그의 예언을 성취한 날이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 속에서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당하시면서 침묵을 지키시다가 베드로를 쳐다 보셨습니다.

어느 역사가는 베드로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죽하다. 베드로는 더이상의 위험을 몰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는 새벽이 밝기를 바라며 밤을 맞았다. 간장을 찢을 듯한 회오에 젖은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며, 그 순간 그의 과거의 삶, 수치, 약점, 자아가 슬픔과 함께 죽어 갔고 그는 새롭고 고상한 사람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후레데릭 더블류 파라, 예수의 생애, 오래곤 포틀랜드 : 파라 출판사, 1964년 604페이지)

다소 사람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는 현대의 경전학자들에 의하여 많은 주옥같은 내용이 발견된 랍비 학문에 정통해 있던 학자였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기록이 바울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자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전져 내라”(롬 7:24).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예수를 만났으며,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날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바울은 “너희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 4:22, 24)고 사람들에게 강조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인간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구세주의 능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말한 것처럼 그는 여러분과 나에게도 “…나오라”(요 11:43)고 말하고 계십니다. 의심에서 비롯되는 낙담에서 일어 서십시오. 죄의 슬픔에서 일어 서십시오. 불신앙이라는 사망에서 일어 서십시오. 새로운 삶으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예수께서 걸으신 길을 걸으면서 구세주께서 주신 간증을 기억합시다. “보라 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니암 11:10-11)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살아 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아버지와 너희의 중보자니라”(교성 110:4)

이상의 간증에 나의 것을 더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날 그의 예언자인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이 지지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합니다. 아멘. 頤

## 합당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축복사의 축복

서울스테이크 축복사 김 종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 18: 1~7)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시면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 이노스의 기도는 물론경에서 읽을 수 있는 가장 절실한 간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노스야 내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 내가 복되리로다”(이노2, 5)라고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은 영어로 된 물론경에서는 “Wrestle”(싸움하다)이라고 한 말을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이 싸움한(Wrestle)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싸움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창32: 24~29)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을 쳐서 환도뼈가 위골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이노스의 간구도 이에 못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몸과 몸이 작용하는 것 이상의 심각한 영적인 관계가 작용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시고 크게 축복하셨던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바친 온 정성은 몸과 몸이 맞부딪치는 싸움은 아니었으나 가장 숭고한 순종,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물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창 22: 17~18)가 그 결과 주어진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계획과 목적은 좌절될 수 없고 수포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굽은 길로 걸지 아니하시며, 바른쪽으로나 원쪽으로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고치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교성 3: 1, 2)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먼저 경험한 자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사의 축복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실 것을 권합니다. 축복사의 축복은 합당하게 준비된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명령하나인간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나의 약속을 취소하나니, 저들이 축복을 받지 아니하는도다”(교성 58: 32)라고 읽을 때마다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선물이 들어왔으나 그 선물을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닐까요? 또 선물을 주는 자도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의 수여자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생을 그의 성스러운 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고 계시며, 우리들의 축복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선의의 판단을 조속히 내려 감독님이나 지부장님의 면담을 자청하여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해리 앤더슨

구세주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갈릴리와 유대에 있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마 28: 19~20)